

어정동 초당골

누대 터전 사라지고 동백지구로 새 사람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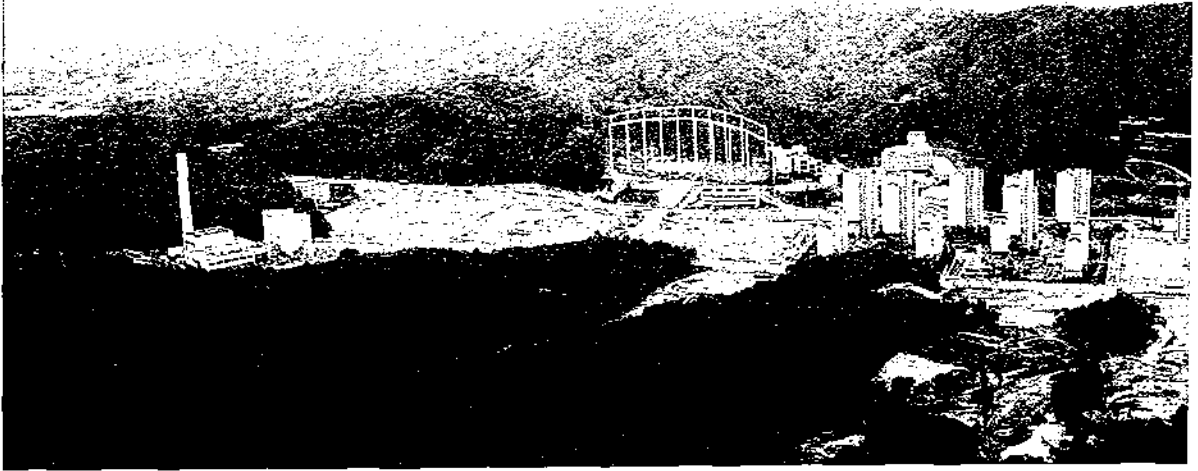
한 마을이 번쩍 사라지고, 그 위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전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게 내 팔자인 듯싶다. 어느새 수만 명이 사는 저 단지를 바라보면서 주마등처럼 옛 모습과 일들이 스친다. 동백지구로 편입된 중동 마을의 가가호호 대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으니, 더더욱 세세한 기억까지 머릿속에 맴돈다. 내·외촌에서 초당골까지 곧게 뻗었던 기차 길, 개발소식이 들려오면서 민가와 공장들이 어지럽게 혼재해 있던 과도기의 을씨년스런 모습, 곳곳에 나뒹눴던 택지개발 반대 현수막, 체념한 듯 논둑에 앉아 담배를 연신 빨아대며 먼 곳만 응시하던 원주민 농



옛 초당골 마을 모습.



초당골을 포함한 중동의 옛 모습. 동백지구로 개발하기 전인 2001년, 석성산에서 찍은 사진이다. 황금물결을 이룬 모습이나, 흑백처리를 해 이



2006 동백지구, 용인의 주거공간은 이처럼 급변하고 있다. 몇 년 사이 아파트 숲으로 들어차고 있는 전경이 옛 사진과 대비된다.



기탄하다.





초당골 느티나무 옛 사진
(2001). 지금은 주변 대지가
복토되어, 허리까지 흙
이 올라와 있다. 보기에
안쓰럽다.

부... 모든 게 과거일 뿐이다.

이제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있다면, 초당골을 지키고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뿐이다. 수백 년 주민들과 숨결을 함께하며 역사가 된 느티나무. 그 나무가 지금 허리까지 흙을 채워 넣고 힘겨워 하는 모습을, 나는 달리는 차 속에서 차창 넘어 보곤 한다.

초당곡의 옛 모습과 먹조현 전설

돌고 돌아 넘어가는 메주고개를 넘어 초당골이 있었다. 성산 밑자락에 동서로 길게 누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따뜻하고 운치있는 평온한 마을이었다. 고려 말 야은 길재 선생이 은거하면서 초당을 짓고 유생을 모아 강학했다 하여 그리 부른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초당곡은 한 마을이지만 4개의 소촌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 동쪽 맨 위를 잇초당골로 불렀다. 그 밑으로 장자골, 아랫말, 은행나무 배기 순이었다. 중리는 차례로 큰 마을이 있었는데, 내촌, 외촌, 언목이었으며, 도로가 이어지는 중간 길목에는 어정이 있었다.

수여선 철도는 이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서 성산 밑 터널을 통해 김량장동으로 이어졌고 여주까지 달렸다.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 1972년에 철거된 철로. 그 길은 이후 그대로 포장되었다. 까까머리 중학생이 여학생을 짐칸에 달고 그 길을 달리면, 갈대밭 사이로 비치는 그 모습은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동편으로 웅장한 성산이 바라다 보이고 마을 앞 남쪽으로는 두루봉이라 했다. 원래 보명산(寶明山), 보개산(寶蓋山)으로 불리기도 했던 성산은 예나지금이나 용인의 진산(鎭山)으로 남아있다. 그 앞이 두루봉이다. 노적봉이라고도 했는데, 높이가 쌓이든 곡식 더미를 일컫는 말이니, 풍요를 염원하는 서원이 깃든 산이다. 예로부터 영남대로이자, 과거길이었던 메주고개는 충청도에서 용인을 거쳐 메주고개를 넘어 온 유생들이 아치지 고개(동진원)너머 구성으로 향하던 길목이었다. 다시 탄천을 따라 가면 서울에 이른다. 고개 넘



초당골로 가는
수여선 기차길.

어 고개에 한 가지 전설쯤 없을 리 있겠는가. 이야기는 이렇다.

충주에 자린고비가 있었다. 하루는 식사도중 된장에 파리가 앉았다. 자린고비는 파리 다리에 붙은 된장이 아까워 좇아 나섰는데 어느덧 메주고개에 도달하였다. 파리를 찾으려 이곳을 '메주' 밟듯 뒤졌다. 다시 날아가는 파리를 좇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어정어정'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파리를 발견하고는 힘차게 덮쳤다. 그런데 그만 '아차'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여기에서 연유하여 각각 메주고개, 어정, 아차지 고개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설이다.

메주고개는 먹조현(覓祖峴)으로 옛 문헌에 나타난다. 찾을 먹, 할아버지 조, 고개 현이다. 즉 할아버지를 찾은 고개다. 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있다.

건너 삼가마을에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관가의 부역 때문에 여러 날 집을 비우게 되었다. 이에 시아버지는 아들 대신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팔아야 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쯤이면 항상 아이를 업고 고갯마루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가도 돌아오지 않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며느리는 아이를 업은 채 앞으로 길을 나섰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한참을 헤매고 있는 차에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아닐까 하여 달려갔더니, 과연 그랬다. 그 곳에는 시아버지가 호랑이를 만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호랑이 앞에 나섰다. "배가 고프다면 내 아이라도 줄 터이니 시아버님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아이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다. 호랑이는 아이를 물고 이내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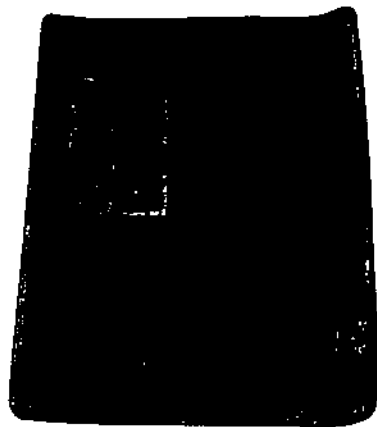
겨우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이내 상황을 알아차렸다. 비통에 젖어 “나는 늙었기에 죽어도 한이 없다면, 어찌하여 어린 손자를 죽게 했느냐”며 크게 꾸짖었다. 이에 며느리는 대답했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으나 부모는 어찌 다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집으로 무사히 모셔왔다.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전설은 언제 생각해 봐도 가슴을 울린다.

초당곡을 지켰던 사람들

초당곡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곳은 충주 박씨忠州朴氏, 한양 조씨漢陽趙氏, 성주 이씨星州李氏, 남양 홍씨南陽洪氏가 많이 살았다. 마을이 사라지기 전 일반 가구는 40호를 조금 넘었다. 그 외에 평산벌라 등을 다세대 주택이 많아 100여 호를 이루고 있었다. 인구는 약 270여명이었다. 축산 농가도 있었는데 5호 정도가 됐으며, 나머지는 대개 전답농사를 지었다. 전답은 종종 소유가 많았다.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은 무엇보다도 산신제라 할 수 있다. 배산임수와 장풍득수를 이상으로 하는 정주 공간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특히



석성산 밑 동네 중동 4개 마을은 철저히 산제를 지내왔다. 비록 마을은 사라졌지만, 올해도 다시 모여 제를 올렸다. <자료 사진>

마을이 등진 뒷산은 진산(鎭山)이라 하는데, 성산은 용인의 진산이었던 만큼 산제사는 가장 중요한 마을의 집단적 의례였다, 그 중요성이 확인되는 것은 완의다. 수 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으로 이재규(73)씨가 보관하고 있던 완의(完議)에는 산제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마을 조직에 대한 운영회칙과 구성원 명단, 산제 방식과 축문 등까지 들어있다. 또 송계(松契)로 불렸던 마을 모임이 1918년 3월 15일 산축계(山祝契)로 바뀌면서 산신제를 이곳에서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순서는 이랬다.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서 3일 사이, 길일을 택해 중리 각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의식을 치렀다. 소 한 마리를 잡고 중리 내촌 뒤편 성산자락에 산주를 모셔놓은 곳에서 거행된다. 좋은 자리를 골라 터주를 지어놓고 그 안에 호랑이와 사자상(象)을 압수 2필씩 쇠로 만들어 산주로 모시고 있다.

“하늘에서 내리신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과 땅에서 솟아오르는 맑으신 산신령님이시여... 신령님의 영험한 능력을 드높여 냇가의 집이나 들문을 상서롭게 하시웁고 귀신이나 요물은 멀리 보내웁고 호랑이나 표범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

시고... 들에는 윤기 흘러 곡식이 잘돼 집집마다 가득하고 ... 깨끗한 짐승과 술, 향을 마련하여 선인이 계신 뜰 앞에 엄숙하고 정결하게 제사를 지내오니 기꺼이 흠향하소서.”

보개산 산신령에게 드리는 산신 축문 내용으로 오랫동안 전하는 것이



다. 마을주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산주를 모신 터가 서너 번 훼손당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인민군들이 '미신타파' 라는 명분으로 없었다. 또 한 번은 누군가에 의해 부서졌지만 동네 어른들은 끈질기게 복원해왔다. 축문에 큰 산짐승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원한 것에서 보여 지듯 옛날 성산주변인 이곳엔 산짐승이 많았다. 작고한 이병직 노인은 “보통 학교 당시 산에 올랐다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 도망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보개산 신령제 보존위원회' 를 1995년에 만들어 계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산개한 마당에 그 전통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수여선 추억도, 성산자락에 얽힌 추억도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 각기 살아가고 있다. 일부는 다시 옛 공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중리는 또 다른 세상으로 변해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 각종 편의시설, 바쁜 길을 오가는 생기 넘치는 사람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오늘 초당곡에 옛 전경이 오버랩 된다. 그리고 한 얼굴이 떠오른다. 5년여 전, 그는 이렇게 넋두리처럼 외쳤다.

“우리는 나가면 그 순간 객사여.” 그 노인은 지금 과연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정동 백현마을

세월의 풍상에 할미성도 허물어지고... 마을도 사라지고...

딱 10년 전이다. 1997년 어느 가을날. 난 그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카메라를 들고 백현 마을을 찾아, 머잖아 사라질 풍경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고추를 팔리던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휘이 저으며 내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의아했지만 순간 그의 비장하고 노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안되겠다 싶어 일단 피하고 말았다.

상황을 보아가며 먼발치에서 취지를 설명했다. 차차 노기가 사라지고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를 토지공사 직원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당시는 이미 동백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된 다음이어서 언제 마을을 떠나는가 하는 것만 남겨두고 있는 때였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농토를 가꾸고 다시 이를 후대에 물리는 것이 숙명이요, 순리라고 믿으며 살아온 노인에게는 한마디로 청천 병력이었던 것이다. 마치 당대에 후사를 못보고 대가 끊긴 채 조상을 뵈러 가야 하는 심정과 똑 같았으리라. 백현하면 아직도 그 때가 떠오른다.

군량 뜰에서 바라 본 백현 마을(1997년).
풍요로운 농촌 모습 그대로다.



아름다운 백현마을의 추억

10년 전, 마을 모습은 이런 것이었다. 백두대간의 한강기맥에서 갈라져 내린 한남정맥의 줄기가 이 마을을 감싼다. 동북쪽으로 할미성이 등대고 있는 한편 동남 쪽으로는 용인의 중심산인 거대한 석성산이 우뚝 솟아 있다. 그때만 해도 가을의 풍요로움이 물씬 느껴지는 들녘에 휘휘 감은 산자락을 끼고 웅기종기 동지를 들고 있었다. 마을은 잣나무고개가 있던 밀 동네라 하여 백현峯이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잣'은 '재'의 옛말이다. 지금은 단순히 고개로만 쓰이지만, 옛날에는 산이나 성城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 '잣고개'란 '성城이 있는 고개'를 뜻하며, 결국 할미산성 고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다. 잣나무 고개와 성城 고개는 전혀 뜻이 달라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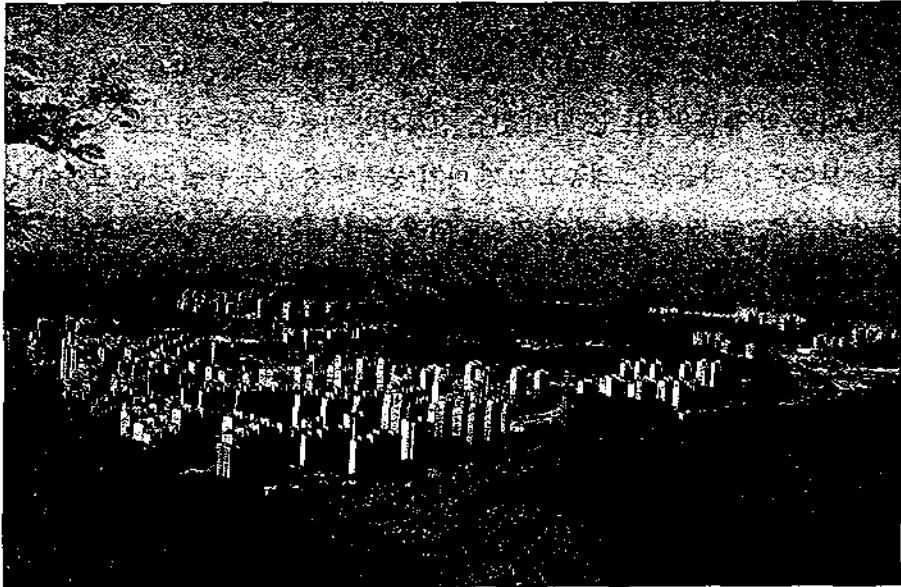
마을 앞에 펼쳐진 넓은 벌판이 군량뜰이다. 옛날 군사들의 군량을 조달했던 곳으로 마을 앞 들판을 이르는 말이었다. 전체적인 마을 형상은 참으로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을을 그려놓고 보면 마치 몽뚝한 손을 쭉 펼친 듯한 모양이다. 산자락 안쪽으로 집이 있으면 양 옆으로 담장 두르듯 숲과 구렁이 감싸고 너른 앞뜰이 펼쳐져 있다.

칸칸이 나뉘어 진 아늑하고 독립적인 공간에 얼추 10여 호씩 드문드문 자릴 잡았다. 참으로 절묘한 입지가 아닐 수 없었다. 흰한 군량뜰 벌판을 따라 길을 오르면 마을 맨 오른편으로 석성산 가까운 쪽이 밭가운데 말이었다. 차례로 윗말인데 돌담이 일품이다.

서편으로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면 감나무와 밤나무가 어우러진 가운데말이고 그 다음이 샘밭로 불리웠다.



할마산성 위에서 바라본 백현마을 일대 모습. 겹겹이 야트막한 산마루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1997년).



같은 위치에서 바라본 2006년 10월 사진. 아파트 숲으로 변해있다.

이 마을은 누대에 걸쳐 밀양 박씨密陽 朴氏가 집성을 이뤄 살던 곳이다. 고려 중엽 규정공規正公 현鉉의 13대손으로 종사품 벼슬인 훈련원 첨정판관訓練院 僉正判官을 역임한 신지新枝가 약 450년전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당시 50% 남짓 박씨였고 각성이 섞여 살았다.

당시 주민 박호식(72)씨에 의하면 윗말 뒤편 산43번지 부근에서 70년대 초반 예비군들이 방공호를 파던 중 고인돌支石壙의 흔적으로 보이는 크고 넓은 덮개돌上石과 받침돌支石, 그리고 꺾문거리 부장품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나왔다는 한다. 나무로 우겨져 직접 그 흔적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청동기 시대의 무덤형태인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임에 틀림없다. 50여호, 약 2백명의 주민이 살았던 백현마을은 정말 빼어난 풍치를 지닌 곳이었다.

마을과 할미산성

이 마을을 대표할 만한 유적은 단연 할미산성이다. 마을 지명조차 할미산성 밑 동네 라는 뜻이니,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할미산성은 동백리 산 32-1번지에 있는 것으로 해발 349m의 선장산 정상부를 감싸 안은 석축산성이다. 에버랜드를 끼고 차로 올라 에버랜드 나들목 주변에서 20여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용인문화유산 총람』에 의하면 “이 성은 마고선인麻姑仙이라는 한 노파가 축성했다고 하여 노고성老姑城, 할미성이라고도 한다.”고 적혀 있다.

1908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모성비국등록명 유폐성姑母城備局勝錄 有廢城’이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에는 “석루石臺 주위는 약 4백간(727.2m)이고 전부 붕괴되었다. 고려 때에 한 노파가 하룻밤에 축조하였다고 전해와 노고성老姑城 이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함미산성과 백현은 때려야 뚫 수 없는 관계이다. 지정 문화재가 된 만큼, 용인 랜드마크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레는 외측으로 약 7백m이며 면적은 약 9천 평이다. 현재 성벽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헬기장 부근 서북향 방향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축성방식은 편축법片築法이다. 거의 곧게 올려 축조한 자연석 외측과 그 안쪽으로 잔돌을 다져 넣고 마지막 안쪽 마무리는 산의 자연지형을 의지함으로써 튼튼하게 유지토록 하였다. 편편하고 20~30cm의 거의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가로길이가 30~80cm로 횡줄이 살아있는 장방형 쌓기를 했음을 보여준다.

지형에 따른 분류로 보자면 산정식 산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산의 정상을 중심

으로 7~8부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이 되게 한 바퀴 돌려 쌓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머리띠를 두른 형태와 같게 하여 테피식이라고도 하고 멀리서 보면 시루에 흰 띠를 두른 것 같이 보여 시루성이라고도 했다.

성의 내부 남쪽은 비교적 넓은 평지가 마련돼 있고 몇 점의 토기편土器片과 와편瓦片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90년대 용인향토문화연구회 박용익 회장과 용인무속보존연구회 유성관 회장이 15점의 토기와 와편을 채집했었다.

노고성老姑城이 쌓아진 것이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는 최근 경기도 박물관과 용인시가 공동으로 벌인 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요지는 “한국 고대의 석축산성으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신라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곽”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앞으로 보존 및 복원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았다.

할미산성을 가 볼 때마다 거의 허물어지고 곳곳에 설치된 예비군 진지의 방벽으로 쓰인 돌조각들을 보며 아쉬운 생각이 차오른다. 지금처럼 방치와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자꾸 허물어져 그나마 남아있는 몇 십 미터도 안 되는 온전한 성벽이 언제 훼손될지도 모를 일이다.

마고할미 설화를 향토 창조신화로?

오래전부터 포곡의 이광섭 선생으로부터 즐기치게 들어 온 당부 말씀이 있었다. 마고할미 전설을 부활해서 용인의 창조설화로 만들도록 신경 써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늘 새기고는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마고할미 전설과 유사한 것이 다른 지역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향토 창조 신화라 할 때는 우리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있었다. 그런데 생

각을 바꾸게 되었다. 유사한 내용들이 있긴 해도 이야기 구조와 결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의 선문대 할망은 제주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다. 여러해 전 전국체전이 거기서 열렸을 때는 초대형 선문대 할망 모형에 올라가 성화 불을 붙이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제주처럼 용인에도 향토 창조신화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자부심과 정서적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늘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신화에 등장하는 마고할미 전설이란 무엇인가? 먼저 용인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풀어보면 요지는 이렇다.

옛날 슬하에 남매를 둔 노부부가 용인 중심부인 석성산 자락에 살았다. 아홉해 동안 가뭄이 들었다. 하루는 현몽을 통해 슬하자손 중 하나를 죽여야 비가 온다고 했다. 노부부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내기를 시켜, 지는 아이를 바치기로 했다. 아들은 성을 쌓게 하고 딸은 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하룻밤 사이에 다녀오도록 했다. 아들보다는 딸이 바쳐지길 원했던 것이다. 이들이 남쪽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자 노모는 북쪽에서 성을 쌓았고 할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며 초조한 마음으로 흙을 한줌씩 쥐었다. 산성이 다 되어갈 즈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딸이 돌아와 버렸다. 이때 노모는 북쪽 성을 다 쌓았으나 아들은 남쪽 성을 다 못 쌓았기에 두 개의 성으로 남게 되고 죽게 됐다. 이때 천둥번개가 치며 장마가 저 가뭄은 해소되었으나 할아버지와 딸은 벼락을 맞아죽고 할머니만 남아 애를 애통해하며 살다 죽어 산신이 됐다. 용인의 산인 할미산성 수호신이 되어 지역 상신령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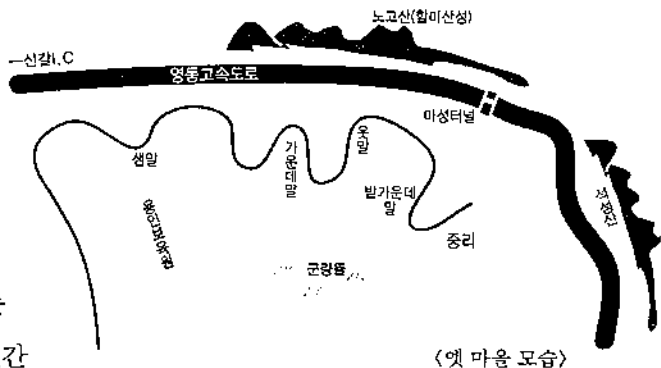
또 하나는 “마고할미가 하룻밤 사이에 성을 쌓은 것이 할미산성이다”라는 설

화도 동시에 전해진다. 이러한 전설을 가진 할미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단오굿 신앙의 중심지가 대관령이듯, 석성산 일대가 신령이 깃든 토속신앙의 중심지 구실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과거 동제(洞祭)를 행하던 곳을 살펴보면 마성 마가실, 포곡면 가마실, 둔전, 구성읍 동백리, 초당곡 등 동제가 근래까지 전승되던 곳은 어김없이 석성산과 할미산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할미(할망) 전설과 관련된 유사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기도 양주에도 노고할미, 삼척에는 서구할미 등 여신에 얽힌 지역설화는 여럿이다. 이들은 비슷한 특징을 지녔다. 마고할미를 포함해 거대한 몸짓과 괴력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설문대 할망이 흙으로 부어 날라 한라산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모현면 갈담리에 돌이 잔뜩 쌓여 붙여진 석담(돌대미)이란 마을이 있다. 그런데 그 돌대미는 마고할미가 치마폭에 돌을 나르다 흘린 것이라는 설이 전해진다.

할미란 말은 할머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한+어미’를 이른다. 다시 말해 ‘큰 어머니(大母)’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발견된다. 선문대 할망은 물에 들어가 키 자란을 하다

가 한라산 물장오리에 빠져 죽고 만다. 반면 마고할미는 끝까지 살아남아 인간 세상의 염원인 비를 주고 신령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패배적인 창조 여신과는 달리 용인의 마고할미 신화는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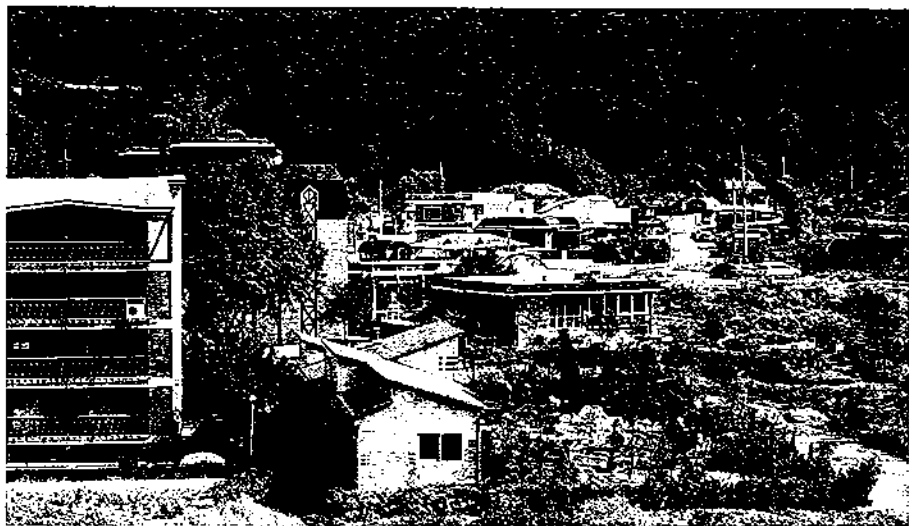
세상의 염원을 해결해 주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 여신임에 틀림없다. 이광섭 선생의 말이 설득력 있다는 얘기다. 용인 향토 창조신화와 관련해선 전문가들과 해당 기관 그리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다시 석성산과 할미산성에 올라 바라본 백현마을은 아파트가 즐비한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 터전에 사는 사람들이야 바뀌었을지언정 백현이란 지명은 그대로 품고 살 것이다. 여전히 설화속의 마고할미는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주민들 역시 석성산과 할미산성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 믿는다.

상하동 민재궁

마을지킴이 신앙의 완벽한 공간

대로변에 있는 마을치고는 웬지 어울리지 않는다. 웬만하면 뜰어 치우는 세상이다. 그런데 민재궁은 마을입구에 장승도 서있고 솟대가 있는가 하면 들무데기와 당산목까지 자리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아직까지 산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지만 그 엄격함에서 민재궁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마을지킴이 신앙에서 산재를 지내는 곳은 마을의 가장 중심된 지역으로 주산이 된다. 상당신을 모시는 곳이다. 마을입구는 거리신을 모시는 공간이다. 탑의 일종



상하동 민재궁 전경. 밀라와 전통농가가 혼재되어 있다.



마을입구에 있는 하당신 공간의 모습.

인 돌무대기, 솟대, 장승 등의 하당신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민재궁이야 말로 용인에서 전통 마을지킴이 신앙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다.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 마을로서 신기할 따름이다.

맨 앞에서 있는 것이 장승이다. 소박하고 자세히 보면 익살스럽기까지 한 우리의 얼굴 그대로다. 어쩌면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고, 잡귀나 병마를 물리치는 수호신이기도 하고 허한 지형을 채워주는 비보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솟대가 서 있다. 높다란 장대 위에 새가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형상인 솟대. 이는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 세워졌다. 주로 오리형을 하는 이유도 나는 새이자, 물에 앉아 먹이를 잡아먹는 물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오리는 천상계와 하상계를 연결하는

중계자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높이 치솟은 솟대를 연상하는 사람들은 이 앙증맞을 정도로 형식적인 솟대를 보면 아마 웃음이 나올 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평소에는 친근한 컴퓨터자 놀이터일 때 느티나무 고목은 그저 정자나무다. 질게 드리운 그들은 한 여름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그러나 원새끼로 끈 금줄이라도 둘러쳐지는 날이면 그 순간은 친근한 놀이터가 아니다. 왠지 범접하기 어려운 당산 신목神木으로 변하고 만다.

신성시 되는 당산나무는 나뭇가지 하나라도 꺾으면 해를 입는다고도 한다. 대개 수 백 년 고목으로 보존되는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다. 때로는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를 건드렸다가 무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주위 어른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민재궁 느티나무 뒤로는 돌무더기가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하나씩 던져 쌓여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법 규모가 있다. 우리가 소원을 비는 장소이기도 하고, 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왜 마을 입구에 왜 이처럼 마을지킴이 신이 돌보는 공간을 만든 것일까. 쉽게 생각하면 마을입구는 문이다. 문은 마음의 문도 있고, 대문도 있다. 그 문은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은 아치와 같다. 이로운 사람이나 신령, 좋은 것은 출입을 허용하고, 해로운 존재들이나 나쁜 기운을 막는 대문지킴이의 상징적 존재들이나 것이다.

민재궁 마을이 마을신앙의 원형질에 가깝다는 평가는 산제에서 더욱 확인된다.

민재궁 공동체를 끌어가는 가장 커다란 힘은 매년 음력 사월 초하루에 치러지는 산제다. 이때가 되면 마을의 모든 주민은 비린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 그

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당주’는 가리고 가려 뽑는다. 당주로 뽑히려면 일 년 간 흥사가 없었던 가장 깨끗한 사람이 맡는다. 그 집은 심지어 강아지 새끼 한 마리 태어나선 안 된다. 부정할 날, 달도 안 된다. 부정할 일이 있으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

어느 정도로 가리고 정성을 다하는지는 주민들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9월 마을 노인정에서 할머니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이 같은 마을 지킴이신앙의 철저함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얼추 10여 년 전이지. 뜨내기가 동네에 들어왔는데, 10월이 아닌 9월에 정성을 들였다는 거여.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 청소하려고 ‘산제사 우물’에 가보니까 물이 바짝 말라 있더라는 거여. 안절부절 못하다가 물을 떠 가지고 올라가보니, 그때서야 물이 가득 고여 있더라야”

감히 날도 못 지킨 정성에 신령이 노한 것이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하고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제사를 지낼 때 밝히는 불은 기름그릇에 솜을 말아 붙여야 하잖어. 그런데 어느 해인가 미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올라갔데. 급한 김에 솜바지에서 솜을 꺼내 기름불을 만들었더니, 글썽 산신령이 불을 휘히 비추면서, 바람이 행하니 불게 해서 불을 꺼트려 버렸다는 거여.”

다음부터는 험곡식이나 새 것이 아니면 제수나 제구로 쓰질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먹는 것, 보는 것까지 가렸다. “이렇게 까지 하는 건 다 대중이 편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자면 그만큼 정성이 필요한 법이여.” 동네 어른의 말처럼 극도의 신성함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가리는 행동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가는 구도자의 그것과도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제준비는 당주와 하주가 한다. 하주는 당주를 거들어 제사 음식 등을 준비하는 걸 함께 도와주는 역할

이다. 제수는 '소산'이라 하는데, 이는 비린 것을 안 쓰는 것을 일컫는다.

음식은 감, 메밀묵, 두부, 대추, 밤... 육류는 하나도 없다. 산제에 쓸 자리도 새로 짠다. 준비가 되면 때를 기다려 자정계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입구에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창호지로 만든 '소지'를 태워 올린다. 그렇게 끝날 즈음이면 대개 새벽닭이 울곤 했다. 지명까지도 '산제사 잡숫는 산' '산제사 골' '산제사 우물'이다.



숙종의 장모, 즉 인현왕후 민비의 어머니 풍창부부인(豊昌府夫人) 조씨의 묘 상석 받침돌에 새겨진 도깨비 상. 묘를 지키는 벽사 상징물이다.

영욕을 함께 한 두 역사 인물

민재궁 마을의 유래는 역사적 사연을 안고 있다. 이 마을 뒷산(현 흥국생명 연수원 서쪽)에 숙종의 장모, 즉 인현왕후 민비의 어머니가 되는 풍창부부인(豊昌府夫人) 조씨의 묘가 있다. 그리고 다음 능선에는 명성왕후의 오라버니 민승호(1830~1874)의 묘가 있다. 예전에 이 곳에 민씨 집안의 제사를 지내던 재실(齋室)이 있었다 하여 민재궁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임금님의 관을 뜻하는 재궁(棊宮)과의 연관성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임금에 준하는 높은 인물인 민씨가 묻힌 마을이란 뜻으로 말이다.

아무튼 이곳에 잠든 풍창부부인 조씨와 민승호의 삶은 한 시대의 곡절과 함께 하며 기구한 것이었다. 먼저 조씨(1659~1741)의 본관은 풍양이다. 18세 때인 숙

종2년(1676), 민유중에게 출가했고, 부인이 낳은 딸이 숙종의 계비로 간택되자 부부인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숙종 15년(1689) 장희빈이 낳은 균(나중의 경종)의 세자책봉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이해 5월 희빈 장씨의 무고를 받아 인현왕후 민비가 폐위되었다.

이때 민비의 어머니에게 내려졌던 '부부인'이란 작위도 삭탈당한 채 불운의 윤패생활을 보냈다. 숙종 20년(1694) 갑술옥사가 일어나 장희빈이 몰락, 인현왕후의 복귀와 함께 조씨에게 다시 부부인의 작위가 내려졌다.

부부인 조씨는 민씨가문에 출가한 후 60여 년 간의 영욕이 엇갈리는 한평생을 살다가 83세의 수를 누리고, 이곳 민재궁에 안장되었다. 부부인 조씨의 묘가 있는 곳은 용인에서 3대지 8명당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라는 설이 있다.

민승호의 삶은 더욱 비극적이다. 아들이 없던 명성왕후明成皇后的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 그의 양오라버니가 되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나서 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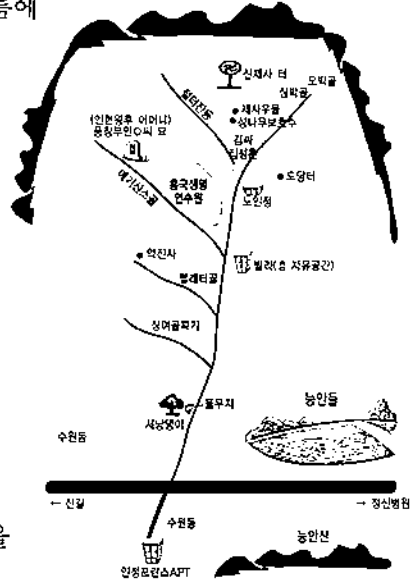
일문의 세도가 엄청났던 시절, 민씨 척족정치의 핵심이었다. 형제인 민겸호와 함께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좌지우지 하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어떤 사람이 보낸 함 하나가 배달됐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 풀어보다, 폭발하는 바람에 아들은 물론 부모와 양모인 명성왕후의 어머니와 함께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말았다. 역사적으로는 명성왕후가 대원군에 대한 미움을 더욱 키워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사건으



명성왕후의 양오라비로 구한말 한 때 정국을 주도했던 민승호(1830~1874) 묘. 비극적인 그의 삶은 권력무상을 느끼게 한다.

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이곳에 묻힌 것은 마을이름에도 보이듯 명성왕후 친정의 소유인 때문이다.

국도변으로 근접해 있는 수원동은 한마을이나 다를 바 없다. 민재궁과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처리한다. 작은 공장들이 많고 집들은 산자락에 길게 늘어서 있다. 민재궁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용 건물이 들어서 마을이 잘 보이질 않는다. 일부 민씨들은 기와집말에 세거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두어 집만 남았다. 어려웠던 5~60년대, 대부분은 갈키나무를 해서 10동씩 한 마차를 채워 수원 화성역 부근 구천동 나무시장에 팔아 생활을 영위해 나왔다.



민병규(68)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새벽 4시 반에 마차를 끌고 출발해서 김치박물관이 있던 양지쪽말을 지나 수원까지 가면 환해졌어. 한 7시쯤 됐지. 밥은 싸 가지고 다녔는데, 양재기 보리밥을 도착하는 대로 먹었어. 나무를 팔면 생선뽕치 하나 사들고 구천동에서 막걸리 한 사발씩 하고 그 기운으로 돌아왔지”

그렇게 악착같이 나무를 팔아 농토를 살 정도로 근면 성실했다는 주민들이다. 영욕을 함께 한 조씨 부부인이나 한 시대의 권력자로 끝내 비명횡사한 민승호 대감. 마을지킴이 신앙을 아직까지 깊이 간직하고 넉넉히 살아가는 노인들. 이들 중 누구 삶이 더 값지고 행복한 것일까. 마을을 나서며 영똥한 생각을 가져 보았다.

상하동 하지석말

할미지석제 이어가는 전통 깊은 마을

이중환의 『택리지』 복거총론卜居總論 편에 보면 사대부들이 살만한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 4가지를 들었다. 요즘 말로 옮기면 지형,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을 가거지 즉 살만한 곳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중환은 그 가운데 계거溪居를 제일이라 하였고, 강거江居를 그 다음으로, 해거海居는 가장 열악한 장소로 보았다.



하지석말 전경. 머잖아 개발 풍문이 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단합이 잘 되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상하동 고인돌.
선사시대의 유
물 고인돌이 현
대문명에 의해
슬하게 시달려,
그 모습이 온전
하지 않다.

개울 주변은 토양이 비옥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관개시설이 편리하므로, 조선 시대의 농경지는 대개 계곡과 분지에 분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골짜기는 산수가 아름다우면서 아늑하고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종족촌을 이루고 살기에 적합했다. 실제 종족촌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큰길가에 나와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도 이중환은 용인을 두고 중급지로 규정해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지석 마을을 그 기준으로 볼 때, 살만한 곳이었을까. 널찍한 하천이 마을 양 옆으로 흐르고 비교적 완만한 산이 살짝 등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그리 척박한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모습은 어떠한가. 42번 국도를 따라

출·퇴근을 하며 하지석 마을을 지날 때면 늘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살기 참 힘 들겠구나” 하는 거다. 대로변에 입지해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데다 인근 물류시설 등으로 인해 주위가 어수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길가 철각과 시멘트 보호벽 속에 들어있는 고인들에 생각이 미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가 된다. 몇 번을 도로 확장에 자리를 옮긴 것은 물론이요, 예전에는 푼다면 차량에 부딪혀, 지금 성한 상태가 아니니 말이다.

곡부 공씨 종족촌으로 자리 잡아

전통적인 종족촌을 살필 때는 처음 자리를 튼 입향조를 따지게 된다. 하지석말 역시 마찬가지다.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곡부공씨 曲阜 孔氏가 마을의 첫 주인이다. 인근에 산재한 묘석의 기록으로 보나, 족보를 살펴봐도 그렇다. 처음 터를 잡은 이는 공미수 孔眉壽다. 그의 출생 년대를 알 수는 없으나 조광조와 같이 기묘사화에 연루돼 고초를 겪었던 공서린 孔瑞麟(1483-1541)의 손자임을 확실하다. 비문에 따르면 “미수께서 서기 1580년경 공서린과 아버지 심궐이 살았던 (남사면) 완장리에서 구성면 상하리로 낙향하였으며, 덕일 등 자손이 번성하였다”고 돼 있다. 이로 볼 때 지금까지 400여 년간 마을의 터줏대감 노릇을 한 것은 곡부 공씨이며, 이들은 아직도 이 마을의 대성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 또 다른 물증에 따르면 이들보다 앞선 주인이 있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인들이다. 이름 그대로 고인들은 들을 고여 만든 청동기 시대, 즉 선사시대의 유적으로서 무덤방이다. 신석기 원시공동체 사회가 계급사회로 전환되면서 생겨난 고인들은 축조 당시의 인구수를 가정해 볼 때 권력자인 족장 뿐 아니라 일반민의 무덤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화된 인식이

다.

구성읍 상하리 하지곶 마을은 고인들을 마을 이름으로 쓰는 드문 경우이자, 동제洞祭의 대상으로 삼는 거의 유일한 마을이다. 42번국도 상에 접해있는 상하리 고인돌. 언제 도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면과 후면의 면석은 훼손되고, 좌우의 면석 고인들은 덮개돌에 짓눌린 채 쓰러져 있다. 크기는 중형으로 장축은 남서형이다. 고인들은 대개 평지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구홍천 상류에 인접한다. 일제의 패망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도 이 마을에는 두 개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위에 있는 것은 상지석, 아래 것을 하지석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상·하지석의 두 음을 따서 '상하리'라고 하였다.

윗마을 지석은 일명 '할아버지 바위'라 했으나, 도괴된 후 멸실되었고, 현재 아래지석은 할미바위라 불려왔다. 하지석 마을의 고인들이 '할미바위'로 불리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설로 전해진다. 옛 이야기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할미산성을 쌓았다고 하는 '마고 할머니'가 그곳 바위 가운데 하나를 현 위치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그때 그 할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바위에 나 있었다는 설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마을 지명 유래와도 관계가 있다. 이 고장엔 큰 고인들이 둘 있었다. 윗마을인 민제궁에 있는 상지석을 '할아버지 바위'라 하고, 아래 마을인 하지석 고인들을 '할머니 바위'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큰 고인들에 얽힌 설화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가 '할머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설화 중 오른 발은 동해에 왼발은 서해에 담긴 채 한라산을 베고 잤다는 전설 속 인물, 제주도 창조 여신 '설문대 할망' 역시 할머니다. 할아버지 바위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문대 할망' 전설과 유사한 경우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하다.

이 지석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제의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지식묘에는 개인들이 약간의 미특신앙적 요소를 가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 마을의 지식묘는 개별적인 제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마을 차원에서 동제(洞祭)의 형태로 위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지식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짚으로 지붕을 엮어 보호했다. 그리고 터주를 받침돌 사이에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마고 할미의 집으로서, 또는 장사의 무덤에 대한 숭상의 개념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다. 마을의 토지신이기여, 이를 신봉함으로써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할미바위 고인돌 등제

최근 몇 년간 고인돌 등제만큼은 꼭 찾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를 순간순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왔는데, 물론 주민들도 제사를 한해도 거른 적이 없다. 택일하여 제사 준비를 했다가도, 동네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중지하고 뒤로 물린다. 다음에 다시 1년이 넘어가기 전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내왔다.

예로부터 '바위 할머니'라 불리는 고인돌을 정신적 토대로 삼아 마을의 안녕과 화합,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바위할머니제의 역사는 임진왜란 때부터로 전해지고 있다. 6.25 전쟁 중에도 이 의식만큼은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먼 옛날에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하였으나 70년도 중반부터 소를 제물로 삼았다고 한다. 소를 잡으면 소머리를 제물상에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를 골고루 분배했다. 제사비용은 주민들이 추렴한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사 길러서 제삿날에 제물로 사용했다고 하나 지금은 마을 기금과 일부의 협찬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마을 할미지석제 모습(2004년 10월).

매년 한번 씩 상달(음력 10월)이 되면 택일을 한다. 당주가 정해지고 집집이 돈을 거두어 소 한 마리를 잡는다. 그 만큼 최대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일반제사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을 그 지석 앞에 올린다.

지난 해 10월 30일, 마을 할미지석제를 보고 기록한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음식을 할 장작이 마련되고 술이 고인돌 옆 너른 마당에 걸린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한기가 느껴온다. 누군가에 의해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아낙은 아낙대로, 동네 청년들은 그들대로 손놀림과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해 할미지석제(석제사)를 주관할 당주는 윤해성씨다. 윤씨는 보름 전 당주로 지명된 후 몸을 정갈히 해왔다. 매일 목욕재개는 물론이요, 잠자리와 외출도 삼갔다. 흥한 것이 있으면 애써 외면하며 지냈다. 이미 지난 밤 지장에 고인돌 밑에

모셔놓은 터주를 손보고 주위를 깨끗이 해 냈다.

8시경. 서서히 할미지석제 준비가 돼가고 있다. 오늘의 동제(洞祭)를 돕기 위해 선정된 유사 3명과 함께 의관을 새로 갈아입는다. 음식은 추렴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정성껏 마련한 것을 당주 집에서 상을 차렸다. 소머리와 고기, 과일이 올라 있다. 9시, 당주와 유사 등 선출된 몇 명만이 고인들 보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제례가 시작된다. 잔을 올리고 축문을 펼쳐든다. 한문으로 쓰인 글에 운을 띄워 읽혀지는 축문.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다. 제문을 푸는 데는 홍순석 강남대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유세차... 유학 윤희성과 동네 주민 거주민은 삼가 작은 소와 술, 과일을 갖추고 목욕 재개하여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삼가 아뢰옵니다. 지석묘의 신령, 창연한 큰 돌덩이, 평지에 우뚝 솟아 큰 마을을 진압하시고, 원대한 기상이 방박이라 할 만하더이다. 종신의 조화가 큰 고을에 미치나니, 진나라의 채찍이 어지럽게 움직이자, 한나라 복이 올리는 듯합니다.

경건히 도움을 받드나니, 재앙을 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을에 복이 있어, 신의 영험을 입었나이다. 목욕재개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나니, 영원토록 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 나물과 떡을 갖추어 감히 길상을 바라나니, 높으신 신령께서는 이를 의지하고 들어주옵소서. 삼가 예를 갖추어 재배하나니, 신령을 보호하고 도와주소서. 신에게 경건하게 아뢰옵고, 또 아뢰옵나이다."

9시 40분. 제사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모여 음식을 든다. 일추 100여명은 돼 보인다. 타지에 가 살던 이들도 마을을 찾았고, 먼 이국땅 출신으로 인근 공장

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소금 간을 치지 않은 백설기, 계수로 올렸던 고기를 넣어 끓인 국, 햅쌀로 지은 밥, 막걸리와 소주가 전부지만 모처럼 동네가 왁자하다.

11시. 타들어가던 장작더미 불길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거나해진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2003년 하지석 마을의 할미지석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고인들마을인 상하3리의 주위환경은 많이 나빠졌다. 곡부 공씨들의 집성촌이었던 마을도 300여 호로 불어났고 30년 이상 된 토박이들은 고작 열서너 집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전통을 지키는 일은 쉬워 보이질 않는다.

외양만큼이나 주민 구성도 바뀌었지만 마을 단합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고인돌, 즉 할머니 바위가 있고 이를 마을신앙으로 모셔온 덕으로 생각하죠. 마을의 큰 어른격인 공달영 옹의 말이다.

당주로 선출돼 보름 여 동안 몸을 깨끗이 한 채 금욕생활을 했던 조상기(59)씨도 “종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도 사실” 이라면서도 “축문과 소지에 표현되듯이 마을 주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신앙인 만큼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마을 전통 계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대로 되지는 않을 모양이다. 택지개발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고인돌과 함께 수천 년을 이어온 권들 마을,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누대에 걸친 고인돌 동제. 과연 내년에도 그 동제를 또 치를 수 있을지, 매년 그 자리에서 드는 생각이다.

구성동 물푸레울(덕수동)

맑은 물에 인심도 따라 흘렀던 사라진 마을

택지개발이 한창이다. 동백리와 인접한 마을로 언남리에 있는 구성동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3km를 가야 한다. 구명區名이 되어도 아까울 옛 현縣 치소가 동사무소로 격하되고 보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다. 203번 시도를 따라 구성에서 향하다 쌍 길에서 범무연수원을 따라하면 청덕리 덕수동이 나온다. 예부터 물이 좋기로 이름나 물푸레울(수청동) 맑은 물이 아래로 흘러 물덕을 보았다는 마을이다. 거기에서 비롯된 인심으로 덕수동德水洞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물푸레울(덕수동) 옛 모습. 북쪽의 범화산 계곡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과 남쪽으로 성산이 보인다. 이미 마을은 사라졌다(1997년).

이미 택지 개발로 민가는 없어졌다. 88골프장이 보이고 나머지는 기종기와 빨
경게 드리낸 흙 뿐이다. 10년 전인 1997년. 당시 주민은 1백 58세대에 약 1천 1백
여 명이었다. 주거형태도 다양했는데, 대개는 예전 농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었다. 개량주택으로는 90세대 정도가 됐다.

그 밖에 70년대 새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8동의 새마을 주택이
들어져 있었다. 영동고속도로가 마을 앞으로 나 있어 밤낮으로 자동차 소음이 끊
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이리저리한 문제로 어수선한 인근지역에
비하면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다.

아마도 경찰대학이 인근에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88골프장과 범무원
수원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러 개발소문이 있긴 했어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다. 물론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빛나갔
다. 개발논리는 그리 순진한 판단과 예측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향린 동산 같은 고급주택단지도 주변에 있고, 10여 군데나 들어선 가든 등 너
덕하고 소비성 짙은 주변의 모습과는 달랐던 마을이다. 예부터 그리 풍족한 삶을
누리던 마을은 아니었다. 좁은 농토에 그나마 대개는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천수답이었다. 좁고 경사가 많다보니 경지정리도 어려워 보편화된 기계화
영농은 더더욱 어렵기만 했다. 결국 몇몇 주민을 빼고 대개는 농사일을 접어두고
공장노동으로 나섰다.

서일포장, 아주전자, 우석 등 동네 내에도 공장이 서넛 있었지만 주민들은 거기
에 취업하질 않고 마북리 삼거리에 있는 서울우유 공장에 많이 다녔다.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단지에 직장으로 나가는 주민들도 여럿 있었다. 거리가 각각 5km,
10km 밖에 안 되어 자동차로 10~15분 안팎의 거리였다.

두 곳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오래 근무한 주민들도 꽤 되는 편이

었다. 산을 끼고 들어가는 열추 막바지 마을이긴 해도 청덕리~수원간 30번 시내 버스가 8차례 정도 운행되고 있어 교통은 편리한 쪽이었다.

농촌지역의 여느 마을처럼 젊은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젊은 분들이 40~50대로 10여명이 남아 있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주변에 큰 공공시설 등이 생겨나게 돼 유입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주민구성은 원주민들과 유입인구와의 비율이 대략 반반 가량 되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주민구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니, 여느 인근 마을과 다를 바 없었다.

예로부터 정월 보름에 웃동네 수청동과 함께 농악을 앞세우고 달맞이를 한 다음, 마을 줄다리기를 매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사라졌다. 바뀐 것은 전래문화와 사람뿐 만이 아니었다. 밭 딛고 사는 대지와 생계수단이었던 자그마한 농토도 대부분 외지인에 팔아 넘겼으니, 이미 개발 수준은 그때 시작된 셈이었다. 개발 당시 절반이 넘는 땅이 주민들의 소유에서 떠나 있었다.

지금이야 허허벌판이 됐다. 하지만 옛 마을의 모습은 덕수동에서 어디를 봐도 시원하게 트인 곳은 없었다. 법화산이 북으로 누워있고 남쪽으론 웅장한 성산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마을중간으로 흐르는 시원한 냇물 줄기를 반대로 걸어 올라가면 법화산이다. 현재는 88골프장으로 편입된 곳으로 '성황당 마루'라 부르는 큰 고개가 있었다. 골프장 북쪽 끝으로는 작은 고개가 있었다. 동편에는 이름 없는 산줄기에 향린동산 별장이 나무숲 사이사이로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보이는 곳이다. 마을 안쪽으로는 유독 감나무가 눈에 많이 띄었다. 법화산이 북쪽 바람을 막아 감나무 생장조건에 잘 맞는 곳이기도 했다. 묘한 것은 개발 바람 이야기가 들리면서부터 감이 잘 되질 않았다. 오래된 수명 탓도 있지만 88골프장이 생겨 북쪽의 법화산을 훼손하고 부터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아마 괜한 억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자연은 이처럼 인간의 손이 타면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게 아닌가. 덕수동은 밤도 유명한 곳이었다. 요즘은 흔하지만 토종밤에 비해 굵은 일본산 개량종 밤나무를 일제 때부터 심어와 큰 밤알을 소출해 왔다.



윤섭과 그의 손자 윤계의 정려문과 위패를 모신 사당(1997년).

덕수동 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참고할만한 자료가 별로 없다. 경주 이씨가 10여 호 있었고, 월성 석씨(月城 昔氏)가 예닐곱 집이었다. 그리고 각성바지였다. 이 마을은 남원 윤씨와 인연이 깊다. 상당부분은 본래 남원 윤씨(南原 尹氏)의 사패지였다. 10여년 이장이었던 윤경호(66)씨가 그 종손으로 유일하게 마을에 남아 있는 후손이었다. 남원 윤씨 가운데 청덕리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가 윤염(尹琰)이다. 그의 아들 윤행림은 조선 정조 때 문신으로 정조·순종 때 사람이다.

여러 문헌에 의하면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의 벼슬에 오르고 승정원 주서 등을 거쳤으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탄핵을 받고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듬해 복직된 후 순조가 즉위하자 도승지·조판서를 거쳐 대제학까지 올랐다. 그러나 수렴청정 하던 정순왕후 세력이 일으킨 신유박해(辛酉道害)에 관련되어 유배된다. 풀려난 그는 전라도 관찰사에 등용되었지만 김조순이란 사람의 상소로 투옥되어 결국 참형을 당했다. 후일



용인최초의 처녀 묘비. 조선조 한 시대의 풍운아 윤행림의 누이가 묻힌 작은 부덤. '處女尹氏'라고 적힌 묘비명이 이채롭다(1997).

현종 초에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윤행림의 인생역정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 격동기에 권력주변에 있었던 한 인간의 삶이 평탄할 수만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1997년 7월 더위에 그들이 잠들어 있는 청덕리 산언덕은 멀고도 으스스했다. 윤염, 윤엄, 상현으로 이어지는 종손들이 차례로 안장돼 있었는데, 다만 특이한 것은 윤행림 누이의 묘였다.

'處女尹氏 弟 行恧 題(처녀윤씨 제 행임 제)'라고 적힌 묘비가 묘역 하단부 북쪽 꼬트머리에 외롭게 서 있었다. 당시 박용익 전 선생은 이를 보고 "용인 관내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이채로운 처녀묘비다"라고 하였다. 죽은 사연이야 알 수 없어도 윤행림에게서 누이에 대한 각별한 우애와 정이 느껴지는 묘석이었다.

마을에는 드문드문 빈터가 눈에 띄었다. 마을회관 맞은편에도 4백여 평되는 집터가 있었다. 들성들성 형식적 조경을 해 놓았을 뿐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흉한 모습이었다. 당시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이었음에도 알만 한 사람은 다 알았던 모양이다.

"터가 좋으면 서울사람들이 사 놓고 털끝하나 못 건드리게 해요. 남 빌려줘서 텃밭이라도 가꾸게 하면 좀 좋아요?" 한 아주머니의 원망 섞인 푸념이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막바지 동네래두 골프장이 들어

서니께 올챙이 하나 있구 손 씻을 물도 안 되어”라며 체념한 듯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난다.

아파트 단지 조성이 끝나면 그 옛 흔적을 얼마나 다시 볼 수 있을지, 약간은 두렵기조차 하다.

마북동 마골

세월앞에 변한게 어디 끊어진 산허리 뿐이라

구성면의 중심산으로 마북·청덕리와 모현면 오산리를 가르는 법화산이 마을을 포근히 감싸안고 있다. 탄천 상류를 이루는 마북천이 깊숙한 법화산 협곡에서 세 줄기로 뻗어내려 마을입구에 이르러 만난다. 용인현의 본래 관아가 있던 자리인 언남리와 이웃하고 있다. 멀리 서편 광교산을 안산으로 삼고 동남쪽 석성산을 진산으로 해 자리 잡았던 행정 중심지역으로 활기찼던 적도 있었다. 15세기 초반부터 1895년 용인군으로 개칭되며 김량장동으로 옮기기까지 무려 450여 년이었으니, 가장 오랫동안 용인의 심장부였던 셈이다.

따라서 당시 마북리 일대는 용인의 치소가 있던 읍내면 지역의 일부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으며, 문화와 삶터로서도 앞서갔던 요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세기 들어 오래도록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던 곳이 바로 이 마을 마북리 일대다.

마북보다는 마골麻谷이라는 고유지명으로 불리는 이곳은 일설에 의하면 북향 하늘 팔 쪽에 있던 절집 이름이 마운사였다 하여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또 스님들이 삼베옷을 입고 다녀 지명이 되었다고도 하나, 이런 예는 없으며 좀 유치한 설이다. 다만 고려시대 때 마씨馬氏들이 집성을 이루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마을 연륜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용인 어디를 가든 변화 속도의 차이일 뿐, 향촌의 옛 모습이 차츰 사라지고 있

다. 특히 요즘 들어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곳이 바로 구성 일대다. 마을에 이르는 주변도 마찬가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옛길에 건축 구조물만 늘어났다. 매우 답답한 인상을 풍기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각종 연구시설이 산 속에 들어서 있다. 일반민들의 주택도 새마을 운동의 유물인 울긋불긋한 슬레이트지붕과 양옥이 뒤엉켜 있다. 그 틈틈이 들어선 아파트는 오히려 안온하고 정감 있는 마을모습을 압도해 버렸다. 그나마 옛 선조들의 지혜의 공간이자, 전통사상이 엿보이는 마을 숲마저 대부분 사라져 버렸으니, 치소로서 문화적 중심지였던 자부심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개울을 따라 마을 숲을 이뤘던 풍치림은 포곡면 가마실과 몇몇 곳을 제외하곤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연 자산이었다. 수령 1백년이 족히 넘는 해나무 숲으로 동편 산까지 몇 백 미터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뿔뿔히 나갔지만, 그나마 마을 입구에 수십 그루가 남아 크고 작은 새둥지를 되어 주었다. 그러나 편리를 가장한 우리 인간의 탐욕은 이마저도 내버려두질 못했다. 최근 동백-죽전간 신도로가 나면서 또 치고 나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떨고 있다.

등등배에 있던 풍치림(마을 숲)은 거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외롭게 도로 교각 사이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해나무 한 그루. 모습이 안쓰럽다.





구교동에 있는 장육전 화백 고택.

파평윤씨와 전씨 부인

마을은 작은 개울과 둔덕을 사이로 나뉘어 돌탑 모랭이와 셋말 그리고 하늘말로 이뤄져 있다. 돌탑 모랭이는 유독 돌이 많았던 곳으로 아직도 흙돌 담장이 눈에 띄는 곳이다. 하늘말은 서편 골짜기로 대개의 농토가 이곳에 있었으며 죽전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이 마을 대성인 파평 윤씨坡平 尹氏 집안의 자랑인 연안부부인 전씨延安府夫人 田氏의 묘와 묘비, 그리고 묘각이 있다. 본래 파평 윤씨는 마골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종족촌을 형성한 마을이었다.

요즘 들어 TV사극의 인기를 탄 탓인지 서점에 쏟아져 나온 조선왕조사 관련서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가 바로 부부인 전씨의 딸이다. 부부인 전씨는 영원부원군 윤호(尹壕)(1424~1496)의 아내로 조선 성종의 장모이자 중종의 외조모가 된다. 윤호가 1473년(성종 4년) 우의정으로 있을 때 딸을 성종의 후궁으로 들여보내 숙의에 봉해졌으며, 1479년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가 폐출되자 이듬해 11월 왕비에 책봉되었다. 성종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 선릉에 묻힌 왕비 정현왕후는 '중종반정'으로 기록된 역사의 현장에서 뚜렷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연산군의 학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중 먼저 거사를 준비하던 사람은 성희안(성희안)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다. 1506년 9월, 군사를 모아 거사를 결행한다. 거사에 돌입한 반란군들은 먼저 진성대군(후에 중종)에게 거사 사실을 통보하고, 권내를 장악하였다. 거사에 성공하자 성희안 등은 성종의 계비이자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정현왕후 윤씨를 찾아가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교지를 내려줄 것을 간언한다. 정현왕후는 처음엔 이들의 청을 거절하다가 결국 연산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강화도 교동에 안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튿날 진성대군이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거사는 완결된다.

박영규가 쓴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들녘)에 그려진 나오는 중종반정의 과정은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연안부부인 전씨의 딸이 왕후가 되기까지 역시 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본래 성종 비였던 공혜왕후 한씨(한명희의 딸)가 17세에 소생 없이 요절하고 말았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숙의가 계비가 되었지만 폐출되는 바람에 세 번째로 들어가 중종을 낳은 것이었다.

힘 빠진 하마비

하마비(下馬碑). 조선시대 종묘 및 대궐 앞이나 성현의 출생지, 무덤 앞에 세워 놓았던 비.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해야 했다.



묘각 뒤로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솔밭에 전씨부인의 묘가 보인다. 거대한 봉분에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2기의 문인석이 좌우로서 있다. 92년엔 도굴까지 당했던 전씨 묘앞 문인석은 관내 어느 석물보다 크며 정성드린 석장石匠의 흔적이 돋보인다. 무려 230cm에 이르는 키에 끝맛한 체형과 상큼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마치 세공품을 만들 듯 세밀하고 뚜렷한 윤곽이 드러난다. 도톰한 볼은 마

치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귀여워 한번 쓰다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든다. 묘각 옆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역사유물인 하마비가 서 있다. 조선시대 종묘 및 궐문 앞에 세워놓기도 했던 하마비. 또는 왕이나 고관·성현들의 출생지나 무덤 앞에 서서 군기를 잡던 하마비다.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해야 했으니 말이다.

‘大小人 下馬(대소인 하마)’라 적혀 있는 이 하마비는 본래 멀리 마을 어귀에 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현재 한국 미술관 입구 민가 앞으로 옮겨졌고, 해방 이후 현재의 자리로 밀려났다 한다. 한때 이 하마비는 의심을 받았다. ‘연안부부인 전씨 묘 앞이니 예를 갖추어라’ 리는 뜻이 맞느냐는 거였다. 이유는 묘역으로부터 근 1km이상 떨



한국미술관 전경.

어져 있었던 탓이다. 그러난 이는 의심할 것이 아니다. 이인영 전 문화원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포은 정몽주 묘가 있는 능골도 다소 거리가 있는 마을 입구에 하마비가 위치한다.

이 같은 사례로 보아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측면이다. 하마비의 이동 지점이다. 처음에는 멀리 있던 하마비가 점차 묘역 가까이 옮겨져 지금은 코앞이다. 뭘 뜻하겠는가. 힘이 빠졌다는 얘기다. 멀리서부터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은 이제 코앞에 와서야 말에서 내리니 말이다.

마을주민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울물을 떠서 밥을 지어먹었다는 마골이다. 이제는 손조차 씻을 수 없는 물로 변했다. 10여년 전만해도 1백여 세대에 330여명의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은 유동 인구가 많다.



요즘 주민들은 자조 섞인 투로 ‘억대거지’란 말을 한다. 지기는 높아 명목상 부자지만 실제 생활상은 형편없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소인 가릴 것 없이 이 동구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해야 했던 위엄과 기풍을 지녔던 마을. 동등배 마을 숲에서 정성을 모아 주민들이 동제를 올렸던 마을. 한 때는 토착민들이 하나 둘 떠나 을씨년스런 폐가가 덩그러니 드러나 있었다. 끊어진 산허리와 투기성 조립건물이 들어차 자본의 위력과 탐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마치 폐수에 오염됐던 도랑물이 요즘 다시 살아나듯, 마을이 재생하고 있다. 수필가 송혜경을 비롯한 따뜻한 외지인들이 들어와 원주민들과 잘 섞이고 있다. 한국미술관 같은 문화공간이 있어 마을의 격을 새롭게 하고 있다. 비록 파헤쳐진 마을 숲이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마을의 새 주인들은 옛 전통을 잊지 않고, 오늘도 동등배 숲에서 동제를 올리고 있다. 마음의 숲이 쑥쑥 푸르게 자라고 있다.

신갈동 상미

교통 요충지 마을공간 변화의 상징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와 정보가 소통되니 문명발전의 핵심이 도로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특히 고속도로는 용인지역, 그 가운데서도 기흥이나 수지 같은 곳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 제대로 된 가로망 없이 촘촘하게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책 없이 인구가 급증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상미는 본래 상촌桑村과 미동美洞이 합해져 탄생한 마을이다. 상촌이야 뽕나무밭이 많았으리라는 걸 대개 짐작하겠지만, 미동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과거에 대시들이 모여 살았는데, 다른 마을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망이 현대화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장 큰 생활권역은 김량장동이었고 그 다음이 백암이었다. 너른 들을 가진 백암은 높은 농업 소득으로 상대적인 풍요로움은 물론이요,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기흥 지역은 그 다음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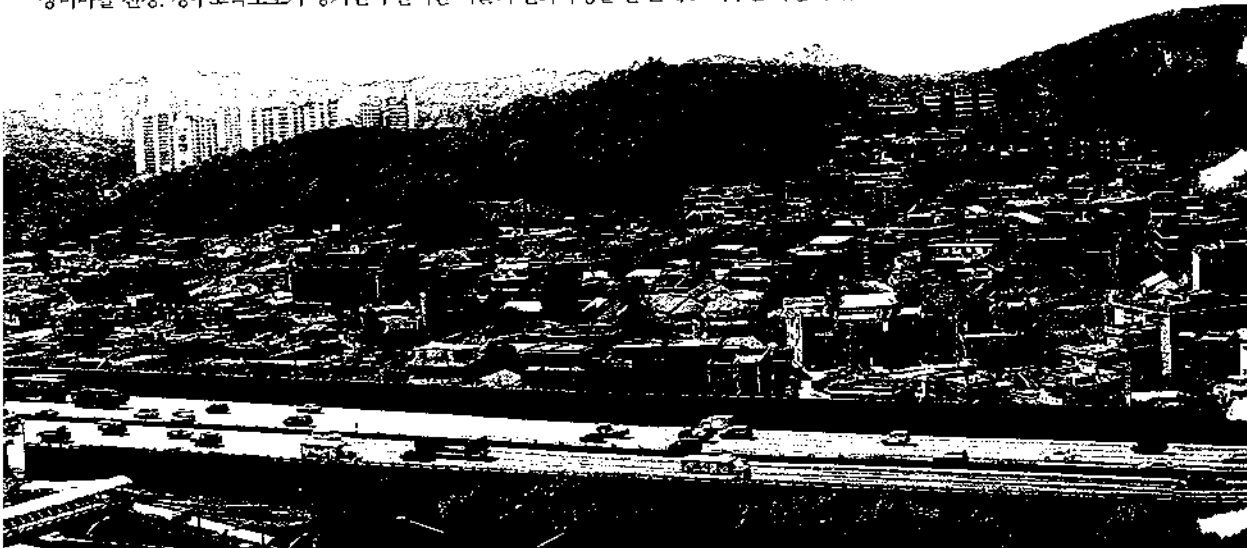
이동면 송전과 양지현 치소가 있던 양지 순이었으며, 구성과 수지는 가장 낙후 지역이었다. 신갈지역의 일부인 상미 역시 예전에는 여는 농촌 모습과 다름바 없었다. 일제 때는 현재 두진 아파트가 있는 잔다리 앞뜰과 고속도로에 편입된 들판, 그리고 역말로 가는 참이풀 등이 기름진 농토였다.

경계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고속도로를 넘어 신갈오거리에서 민속촌으로 우회전하면서 그 안으로는 상미마을이었다. 본래 현재 오거리 부분에 하천이 있던 것을 복개하여 도로를 냈기 때문이다.

옛날 역원이 있던 원기院基와 마주하고 있었다. 일제 시절에는 역을 중심으로 새로 마을이 발전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았다. 일본인들은 주로 원기마을에 집촌을 이루면서 과수원을 경영하든지,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상미는 전형적인 농촌으로써 원기의 배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농사를 지어 공급했으며, 더러는 일본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값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또 하나 의미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마루보시’로 통칭되던 통운회사였다. 그만큼 물자가 움직이는 거점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의 중요한 터전이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마을은 전주 이씨, 경주 김씨, 신창 맹씨新昌 孟氏를 중심으로 대성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는 각성바지였다. 본격적인 변화는 60년대 말이었다.

상미마을 전경.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한적한 시골의 변화과정을 한 눈에 보여주는 마을이다.



고속도로 개통 후 마을 급변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68년 2월이었다. 당시 서울 연지동 톨게이트에서 기공식을 한 후 착공 11개월만인 1968년 12월, 1차 구간이 완공되었다. 바로 서울-신갈까지였다. 개발독재로 일컬어지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거칠 것이 없었다. 당시 마을은 고속도로가 나는 곳에 일부가 포함되었으니, 집단 이주를 해야 했다.

마을 공간의 대변화가 일었다. 농업 중심의 직업구조도 농토가 줄어들면서 이사를 하든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의 급증이었다. 본래 80~90호 하던 마을은 점차 늘어 몇 배가 되었다. 과거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자기집을 가졌던 주민들은 이후 세입자의 증가, 다가구 주택으로 급격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통이 지역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 가운데 토지가의 급상승이야말로 가장 극적이다. 1977년 경 기흥의 중심지로 진입하는 주변 땅값은 대략 700원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인 1980년대 말에는 600만원으로 뛰어들었다. 무려 1만 배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전국의 명물 삼흥 한의원

40대 세대까지 '이명래 고약'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위생상태가 안 좋아 어린이들은 피부병의 하나인 굼기를 잘했다. 그 때면 꼭 필요한 것이 그 약이었으니, 굼는데 치료약은 이명래 고약이란 대명사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또 하나의 피부병이라면 바로 옴이었다. 주로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병은 매우 참기 어려울 정도로 가려운 것이 특징인데, 해방 전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흔했던 병이었다. 이 같은 증상에 특효약이 있었다. 삼흥 한의원 약이었다.

이 약을 개발한 이는 이회덕으로, 바로 상미에 거주하는 전주 이씨 종가였다. 그는 한의학에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옴약 이외에도 무기단이라 불리는 식채용 한약과 혼으로 피워 치료하는 매독약 등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약이었다. 삼흥이란 상호도 한의원을 대표하는 3가지 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흥 한의원을 찾는 이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한 때는 만주일대에서 까지 찾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명약을 이은 것은 그의 자제인 이종영李鍾英(1900~1955)으로, 당

일제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옴약'을 개발해 명성을 날렸던 삼흥 한의원 원장 이회덕. '이명래 고약'과 쌍벽을 이루며 만주 일대까지 팔려나갔다고 한다.



시로서는 드물게 경성약학전문학교를 나와 비방약의 명성을 지켜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려 100년의 전통을 가진 삼흥한의원은 폐업을 한 지금까지도, 알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한다.

해방정국과 6.25 전후 혼란기와 맹두섭

상미마을을 특징지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해방정국과 6.25 한국전쟁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 격렬함에 비해 불행한 상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다. 먼저 이종영이다. 그는 이미 유명 한의원의 가업을 이어받은 상태에서 중앙무대와 연결된 백범 계열의 중진이었다. 그는 독립축성회에 관여하면서 1947년에는 독립신문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돌연 귀향했다. 이어 사돈 관계이자, 또 하나의 마을 유력 집안사람인 맹두섭(95)옹과 함께 '기흥 면민회'를 결성했다. 해방정국에서 치안 공백상태에 적극 개입하고자 함이었다.

당시 회원들은 1949년 백범선생이 암살되자, 장례일에 맞춰 마을 뒷산 두루봉에 올라 울며 제를 올릴 정도로 결속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던 기흥일대를 격한 이념



맹두섭(95)옹. 그는 한국전쟁 당시 극한 좌우대립 속에서 대동청년단장을 맡아 인명 피해를 없도록 하여 '용인의 선들리'로 불린다.

적 대립의 현장으로 내몰렸다. 일부 지역은 당시 좌익활동으로 유명한 상태에서 충들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빛난 사람이 이종영에 이어 대동청년단장을 맡은 맹두섭이었다. 마치 광풍처럼 보복전이 전개되던 시절, 오히려 신갈만은 큰 희생 없이 넘어갔는데, 그의 확고한 ‘역지사지(易地思之)’ 신념의 결과라는 것이 당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대부분 강요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생각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정규과정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가운데 배움의 열망에 가득했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배성중학교가 있었던 곳도 상미다. 수여선 기차 길 추억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택지개발 바람이 부는 마당에 마지막 미개발지 상미. 그 흐름에 못 이겨 다시 또 한 번 외양이 변할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더라도 극한 상황에서조차 서로를 이해하고자 했던 ‘맹두섭 정신’ 만은 영원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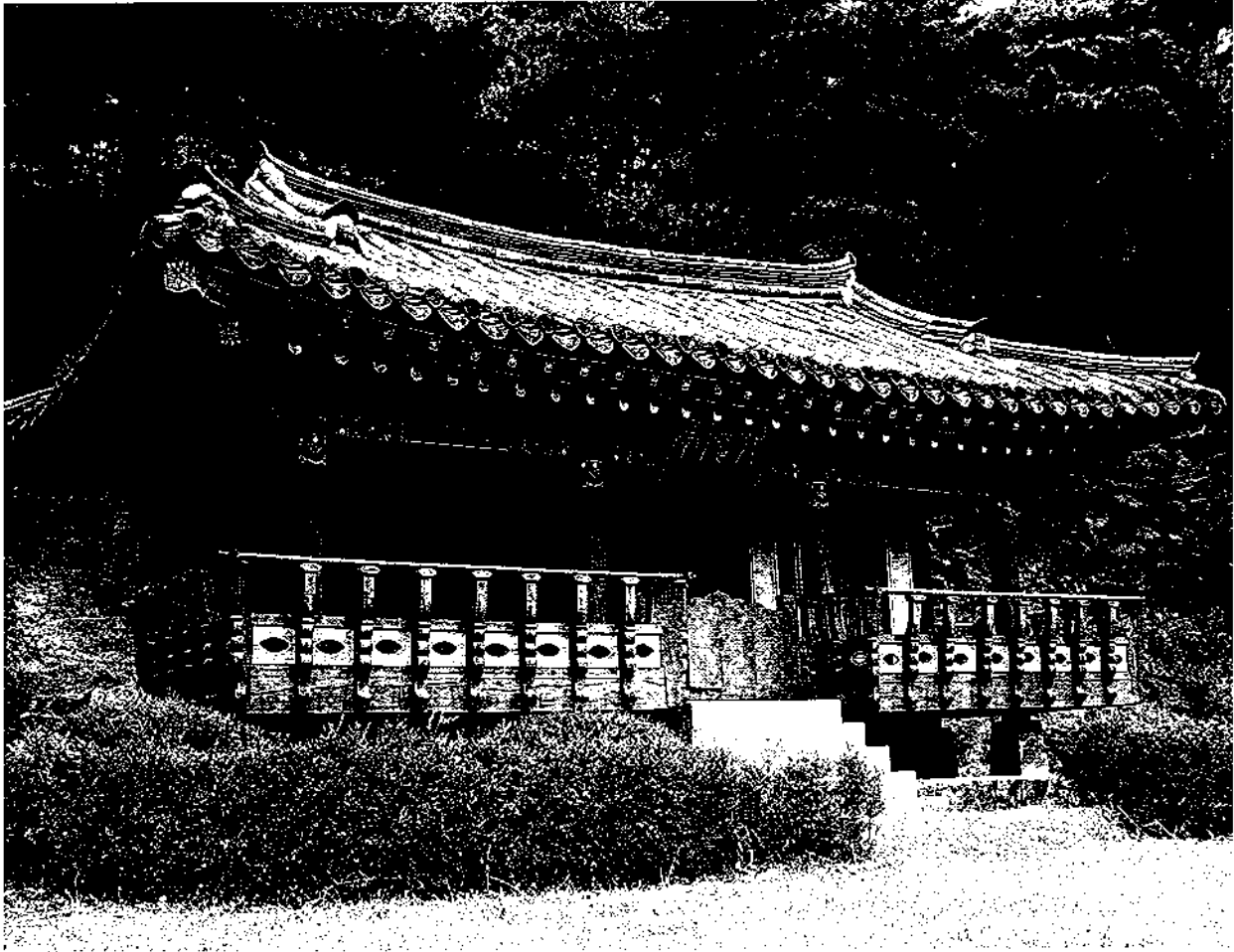
상갈동 지곡

음애 이자선생과 기묘명현의 숨결 다시 느껴져

“나와 정암(조광조), 자네 선친 형제의 의는 형제와 같았고 실로 도道가 부합하였다네. 정암과 나의 선산은 용인에 있었고, 방은(조광보) 형제의 전장田莊도 용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만나지 않는 날이 없었고, 향리에 내려오면 서로 어울려 두암에서 천렵하고 심곡深谷에서 화전을 해 먹었으며, 방동에서 꽃을 보곤 하였네… 정암(조광조)과 회곡(조광좌)의 불행은 끔찍하여 차마 말할 수도 없으며 나만 죄를 짓고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공자가 말한 ‘다행히 산 자’ 격이구나… 우리 넷은 한 칸 집을 두암斗巖 위에 지어놓고 여기서 낚시도 하고, 나물도 캐고, 나무도 하고, 농사도 하는 이 네 가지를 즐기기로 약속하고 정자 이름을 사은四隱이라 붙였다네.” (『음애 이자와 기묘사림』 231쪽, 정만조 외, 지식산업사)

여기서 ‘나’는 음애 이자(1480~1533)다. 음애는 끔찍한 기묘사화로 한 순간에 벼들을 잃고 은거해 있으면서 조광좌의 아들 조항趙沆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다. 그는 편지를 통해 사은정을 지은 이유와 네명의 우정을 위와 같이 술회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하니, 눈물을 금할 수가 없구나”라며 간신히 글을 이어간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사이였던가. 용인과 이들은 어떤 관계란 말인가. 몇 줄의 글을 통해서도 그 전말의 일단이 드러난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을 살피고 지곡동을 걸으며 역사 속에서 그들을 만나보자.



사은정(四隱亭). 정암 조광조, 음애 이자, 방은 조광보, 회곡 조광좌 등 네 명이 낚시도 하고, 나물도 캐고, 나무도 하고, 농사도 하는 이 네 가지를 즐기기로 약속하고 정자 이름을 사은(四隱)이라 붙였다. 기묘 사림과 연관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용인으로 맺어진 기묘사림

먼저 인물을 살펴보면, 정암 조광조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썩은 정치를 바로잡으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사약을 받고 죽어간 개혁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다. 상현동에 묻힌 그는 이미 중조부 조육이 용인이씨 이백찬의 사위가 되어 신갈에 묘를 쓰면서 용인과 연을 맺었다. 이어 조부인 조충손과 아버지 조강원이 심곡리(상현동)에 유택을 마련하니, 그에게 용인은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나이 19세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막을 짓고 서원말에서 공부를 깨울리 하지 않았던 그다.

음에 이지는 지곡이 고향이다. 32세 되던 1511년(중종 6)에 아버지 대간공 예견(禮堅)의 상을 치룬 후 머문 것은 물론 수시로 고향에 드나들었다. 고향집 기와집말 앞 다래울 계곡 바위틈에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었는데, 그는 이를 좋아하여 풍림거사(楓林居士)라는 자호를 가질정도였다. 중종반정 후 개혁세력 모태인 기묘사림의 중심인물로서 사림계의 대표가 거치는 홍문관 부제학 - 승정원 승지 - 우참찬의 코스를 거친 기묘사림 좌장이었다.

다음으로 방은 조광보과 회곡 조광좌는 형제다. 형 조광보는 스스로 벼슬에 나가길 마다하고 숨어살면서 조광조, 이자와 교류했다. 이를 두고 후일 음에는 “우리보다 몇 수 위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기묘사화에서 그만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동생 조광좌는 중종 14년 사헌부 지평이 되었는데,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하고, 1521년 28세의 나이로 끝내 옥사하고 만 인물이다. 이들의 고향은 이웃한 보라리다. 민속촌 내 양반가 일대를 ‘방은골’이라는 부르는데, 바로 조광보의 호를 딴 것이며, 그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기와집말에 있는 음에 이자 (1480~1533) 고택.

이들은 이처럼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용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친구로서의 우의와 함께 동지이기도 했다. 중종반정 이후, 중종은 연산군 때의 폭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람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 때 중심인물로 떠오른 조광조 등 신진개혁세력은 향약 보급운동, 반정공신위훈삭제, 현량과 실시 등 각종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이 때 신진사류를 대표하는 얼굴이 조광조였다면 기묘사림의 좌장은 이자였던 셈이다. 연령과 과거급제, 관직 면에서 이자 위는 없었다.

이처럼 이들은 정국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이면서 용인이라는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가까이 모일 수 있는 두암4巖에 사은정을 지은 것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낚시도 즐기고 나물도 캐는 등 유희자적 한가로움을 즐기면서도 학문과 정국을 논했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이없이 사라진 두암이여!

그럼 음애집과 사은정 중수기에 등장하는 두암은 어디를 말하는가. 나는 민속촌에서부터 천천히 차를 몰았다. 민속촌에서 넘어가는 고개를 산정고개라 한다. '사은정 고개'의 변음임을 알 수 있다. 10여 년 전, 이 길을 넘던 때가 생각났다. 당시 동행했던 박용익 선생은 대뜸 "이곳을 피난골이라고 불렀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산길을 오르듯 높은데다가 좁아 차 한 대가 길만했다. 그 고개를 넘으며 드러나는 마을 모습은 마치 신천지같이 아늑했다. 어쩔 산 속에 이처럼 큰 마을이 있다니! 나는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지금은 평지와 다름없는 고개를 넘어 좌로 남부골프장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은정이 보인다. 사은정이 있는 동네는 두암산을 경계로 하여 민속촌과 맞닿아 있는 마을로 '한촌韓村'이라 불리는 곳이다. 청주 한씨 종족촌이기 때문이다. 마을 앞으로 지곡천이 감돌아 나가는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두암에 사은정을 지었다"는 음애 일기를 바탕으로 주변을 살폈다. 큰 바위는 물론이요,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할 만한 절벽도 없었다. 대신 사은정 앞에는 넓게 마련된 주차장이 있었다.

대체 명현들이 노닐 던 두암은 어디란 말인가! 그날은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나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두암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 지곡동 출신으로 음애 후손이기도 한 수지중학교 역사 교사 이종구 선생을 통해서였다. "사은정 앞에 계곡이 흘러나가는 벽면 바위가 '두암斗巖'이었는데, 1961년 신갈저수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돌이 필요하다하여, 그 바위를 깨서 보를 막는



민속촌 - 지곡간 사은정고개의 옛모습. 왼쪽이 옛길, 오른쪽이 새길이다. 새길을 닦은 후 구길까지 넓혀 큰 도로가 됐다. 몇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데 썼다”는 기막힌 설명이었다. 당시 사은정을 관리하는 후손들이 있었건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망연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며 즐거움을 얻겠다 던 네 명 명현들의 흔적은 어이없는 우리의 무지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다. 그들이 낚시질을 했던 장소가 바로 두암이었기 때문이다.

사은정 동지와 기묘사화

이자가 조광조 등과 사은정을 지은 건 그의 나이 37세 되던 1516년(중종11) 10월이다. 그로부터 기묘사화가 난 것은 3년 후인 1519년 11월 12일. 3년 동안 그들

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종의 신임을 받은 이자와 조광조는 정난공신 삭훈과 소격서昭格署 혁파 등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펼쳐 나갔다. 중종반정에 공로를 세웠다는 이유로 받은 공신위훈은 훈구세력의 물질적 기반 확대로 이어져 기묘사림의 입장에서는 개혁의 걸림돌이었다. 또 소격서는 도교 신앙을 관장하는 관서로서 신진 사림들은 미신으로 간주하여 혁파를 주장한 것이다. 중종실록에 근거해 작성한 이자의 연보年譜에는 3년 동안 상소와 왕인 중종이 참여하는 강론자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주창하는 장면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1517년 3월 16일) 정난공신 녹훈 시정을 윤택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차자를 올린다. (동년 7월 30일) 경연이 늦게 끝나 식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경연을 식사 뒤에 하거나 식사를 하며 하자는 중종의 제안을 반대하다. (동년 12월 19일) 주장叢講에서 바른 말하는 신하를 미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다. (1519년 11월 2일) 조광조 등이 주도하는 정국공신의 개정 즉, 위훈삭제를 요구하는 대간의 상소가 계속되었다. …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조광조와 이자 등 대신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임금을 불러내 강론을 했다는 점이다. 조강朝講, 석강夕講, 주장叢講까지 보이니 말이다. 군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는 의외의 장면이다. 그런데 결국 이처럼 공세적인 개혁요구와 왕이 짜증을 낼 정도의 강의는 나중 엄청난 화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1519년 11월 15일(중종 14년). 의금부에 의해 조광조(대사헌), 김정(형조판서), 유인숙(도승지) 등 기묘당인이 체포되고 만 것이

다. 조광조는 능주(현 전남 화순)로 유배를 떠난 직후 사약을 받아 죽었다. 함께 체포됐던 이자는 파직된 후 풀려나 고향 용인의 지곡으로 돌아온다. 조광조는 역시 삭탈관직 후 장살(杖殺) 당해 옥사한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풀려 날 수 있었을까. 《음애선생 연보》에 따르면 당시 영의정 정광필은 “이자는 비상한 인물이며 국가의 훗날 크게 쓸 사람입니다. 관대하게 처분하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죽음의 길에서 다시 만난 이자와 조광조

기묘사림의 좌장 이자는 풀려나 조광조를 만났던 모양이다. “능주 유배 길을 떠나는 조광조와 용인에서 작별하다.(11월 18일)” 사은정에서 은거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자던 이자와 조광조는 정치의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생사의 다른 길에 서게 된 것이다. 이때 이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조광조는 7일 후인 22일, 사약을 받고 죽어 선대가 묻힌 심곡리(상현동)에 들어와 영편하게 됐다. 그의 나이 37살 이었다. 회곡 조광좌도 장살(杖殺)당한 후 고향마을(현 쌍용아파트 자리)에 묻혔다가 아파트단지 개발로 현재는 운학동 버마강굴에 잠들어 있다. 그의 형 방은 조광보는 엄청난 충격에 고향에 은거하며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곧 세상을 떠났다.

결국 남은 것은 제일 연장자인 이자였다. 그는 다시는 사은정을 쳐다보며 살 수가 없었으리라. 41세 되던 1520년 음성 음애(陰崖)로 거처를 옮긴다. 그의 호 음애는 지명이자, ‘어두운 절벽’이란 뜻이니, 그의 심정을 능히 헤아릴 만하다. 이후 또 다시 충주 토계(兜溪)로 거처를 옮긴 후 세상을 등졌다. 당시 그 먼 곳으로 기쁨 찾아오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귀양을 갖다 온 용인 사람,

십청헌 김세필이었다.

조선조 개혁정치와 상징이자 시대의 풍운아 정암 조광조, 중종 조의 유학자로 기묘사림의 좌장이자 목은 이색의 후손 음애 이자, 학문이 높았던 방은 조광보, 회곡 조광좌, 그리고 사람의 철학적 바탕이었던 성리학의 시조 포은 정몽주, 기묘사화를 함께 겪고 유배되었다가 훗날 복권되어 형조판서까지 올랐던 십청헌 김세필.

이렇게 볼 때 조선조의 역사적 줄기와 중종조의 한 시대는 용인을 근거로 살았거나 유택이 매개가 된 이들에 의해 쓰여 졌다고 한다면 과장일까. 사은정으로 맺어진 한양 조씨 회곡공파와 한산 이씨 음애공파 후손들. 이들은 선대의 뜻을 받들어 형제의 연을 맺었다. 그 후 이들은 결혼조차 하지 않는다. 사은정 관리와 유지 계승도 함께 하고 있다.

기묘명현으로 역사에 기록된 4인의 용인 명현. 이들이 걸었던 역사적 흔적을 따라 그 숨결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바른 역사의식과 용인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영덕 덕골 · 잔다리

흥덕지구 택지개발에 흔적마저 사라지고

용인과 수원의 거의 경계를 이루는 서쪽 꼬트머리, 덕골마을. 생활권은 수원, 행정구역은 용인에 속해 있는 어중간한 입지조건 탓일까. 외양으로 보여 지는 이 마을의 모습은 그리 푸근한 안정감이나 정감 있게 다가오진 않는다. 아마 번들번들 윤기가 흐르던 애완전이 털갈이를 막 시작할 때의 새드새드한 모습이다. 가을 건기가 끝난 이후의 스산한 황량감이 이런 느낌을 부추기는 것 같다. 태평양화학 공장 담장을 따라 올라가 태광 골프장이 있는 서북방향으로 마을이다.

동서로 길쭉하게 늘어서 남으로 향해 있고 그 앞을 국수봉이 가로막고 있다. 비교적 야트막한 구릉을 타고 언덕을 가르며 곧게 나 있는 시멘트 포장길. 이 길이 바로 40여 년간 주민들의 친구로 그들 가슴속에 애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철로다. 수여선(水麗線)으로 불렸던 경동철도.

주민들의 향수어린 추억이 담긴 수여선을 일제가 부설한 이유는 효과적인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서는 일본의 조선 내 철도

덕골 전경(2002년). 영덕리의 으뜸 마을로 덕수이씨(德水李氏)가 세거하던 곳이다. 이경중(1595-1648)의 묘가 있기도 하다. 흥덕지구에 포함되어 마을이 없어졌다.



부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왜놈 발에 발동 달기지... 왜놈덜이 발동 달았다 하면 조선천지를 활취고 땡길 참인디 그리되면 세상 어찌 되겄소.

마을에는 궤도만 걸어내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당시의 운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다. 성토를 해서 10여m이상 다지고 철길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흠집 없이 성한 모습이었다. 이를 보면 목적에 있어서의 수탈성을 떠나 그 시대의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덕곡에는 임시역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물론 뉴시터로 유명했던 원천과 신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

철로를 따라 신갈로 학교를 다니던 그 길이 태광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이와 함께 추억의 덕굴마저 매워져 버렸다. “밭길 가는데 길 낸다”는 말도 있건만 본래 있던 길마저 없애버렸다. 신갈로



수역선 철길.





이경중(1595~1648)의 묘

다니던 초등학생들은 수원 매원초등학교를 다녔다. 택지 개발이 되기 훨씬 전부터 생활권은 물론 도시계획마저 수원에 편입되어 있었다.

덕골은 대대로 이 나라의 충신들의 혼령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옛 철길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뒤편으로 커다란 신도비와 함께 너른 묘 터가 마주 보였다. 이경중(1595~1648)이다. 본관이 덕수(德水)로, 절도사 원(元)의 증손이다. 강화(講和) 성립에 이르러 청 태종이 명나라에서 보낸 금보(金寶)를 가져오라고 하자, 이경중은 왕에게 허락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조종의 3백 년 동안 전해오던 금보를 오랑캐에게 실어 보낸 다음 천하 후세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신도비에 적혀 내려오는 내용이다. 그가 주화파(主和派)와 주전파(主戰派) 사이에서 주전파의 입장을 가까이 했던 것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결국 그는 “왕의 장자와 제2자, 그리고 대신의 자녀를 인질로 보낸다”는 왕복의 조건에 따라 인질로 갔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후에 효종)과 함께 그의 두 아들도 동행했다.

그의 후손들인 덕수 이씨 효종공파가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면서 김해 김씨, 광산 김씨 등과 함께 대성을 이뤄 살아왔었다.

턱턱지 않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부지런했다. 60년대부터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등 고품품을 생산해 소득을 올렸다. '새끼들'은 가가호호 있을 정도여서 40여 대에 달했다. 10년 전. 주민은 540여명, 가구 수는 142가구였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영농의 다각화를 이룬 일부 주민들은 양송이 재배로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항암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신비의 버섯 '아가리쿠스'는 영덕의 특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용인이씨 발상지 잔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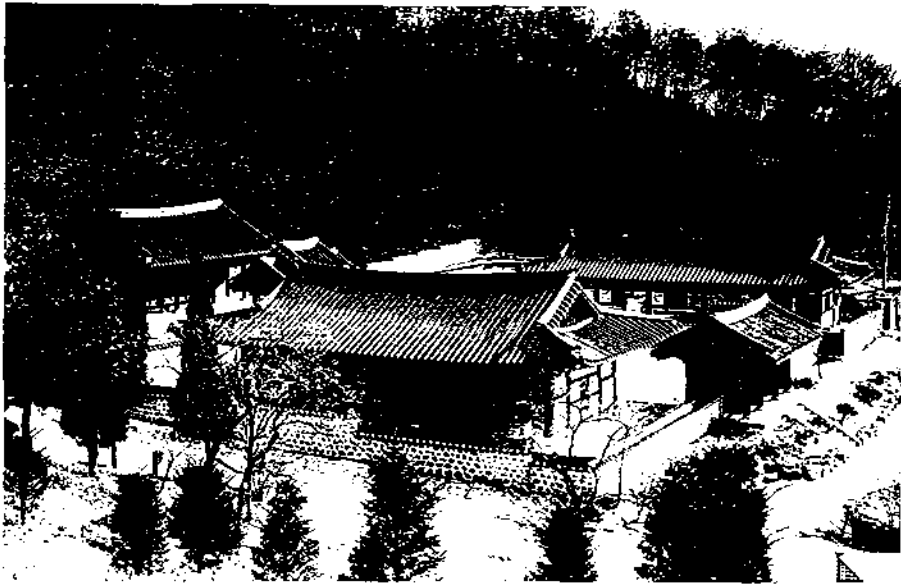
신갈에서 영릉으로 넘어가는 돌 고개를 사이에 두고 양편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수원인터체인지를 막 지나면 왼편으론 1천5백여 세대의 두진 신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잔다리 마을 전경(2004년).



용인의 토성土砦이자, 조선조를 통 털어 용인 최대 재지사족으로 자리 잡았던 용인 이씨 시조始祖 이길권李吉權 발상지비.



용인 이씨 재설.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예전에는 새말과 합쳐 석현石峴으로 통칭되던 곳이다. 마을 이름을 잔다리, 한자로는 細橋라고 불렀다. 한자가 억지스럽다. 한편에서는 용인 이씨 중시조 이중인李中仁의 인품이 자애롭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자은교慈恩橋라 한데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그 보다는 잔들 또는 잔다랭이의 변음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지형적인 여건을 봐도 그렇다.

이 마을은 용인 이씨의 발상지로 알려졌다. 지금은 실전되어 그 분묘는 남아있지 않지만 나말여초羅末麗初이 지역 실력자였던 시조始祖 이길권李吉卷이 태어나 묻힌 곳이다. 신라 헌강왕 6년인 서기 880년에 난 그는 고려건국에 공훈이 커 고려 태조가 즉위한 후 그 공로로 5백호戶와 산성군山城君을 봉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사한 녹을 사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태조는 그의 공덕을 숭모해 다시 승록대부 태사를 제수하였다 한다.

용인이씨 족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신라의 국운이 쇠하여 혼미를 거듭하던 난세의 때인 신라 경명왕 2년, 혁명으로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였다. 그간 누차 태조의 부름을 받아왔던 공이 용인지방의 토호로서 태조를 도와 고려건국을 전후하여 궁예와 견훤을 평정하고 동예의 고부 이오환 등을 격파하여 삼한을 통합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다.”

그러나 천년세월이 흐르고 병란과 정란으로 인하여 장구한 세월동안 자손들이 흩어지다 보니 시조로부터 13세째에 걸친 묘가 실전 된지 오래됐다. 14세손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이중인의 묘를 찾은 것도 일제 때였다. 하루는 후대 산소 묘지가 꿈을 꾸었는데 땅이 날아가 쫓아가니 현 이중인의 묘 자리에 숨더란다. 이상해서 파보니 그곳에서 묘와 석물이 발견됐다. 멀리까지 뻗어나간 산줄기가 점점 이 처진 높은 이 터를 두고 자손들은 용인의 3대 대지大地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중인은 고려 충숙왕 2년(서기 1315년) 송경(개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에 나갔으나 이성계가 나라 세우면서 불사이군不仕二君의 정신으로 머리를 풀고 설거산에 들어가 벼슬을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죽으면서 “이씨왕조 밑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후손에게 하였단다. 이에 받아들인 사영도 공양왕 2년 남원으로 귀양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 백찬도 초지일관 조부의 유언을 따라 삼세불사三世不仕 했다. 반면 둘째 아들 사위는 벼슬길에 나서 조선개국 후 개성 유후를 지냈다.

삼세불사했던 그들의 충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의 기득권을 쥐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역사의 도도한 변화흐름을 읽지 못한 명분론에 치우친 것이었을까.

기흥동 공세울

고난의 역사에도 천년을 살아 숨쉬는 석탑

기흥지역에서 걸으며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옛 농촌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세울도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변신하여 주변이 정돈된 모습도 아니다. 농경사회의 유물인 가옥구조, 산업화 시대의 상징인 대기업 연구소와 대형 창고, 인구가 밀집 한 수도권 지역의 특징인 아파트가 뒤섞여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기흥에서 공세울에 이르는 도로는 23국지도다. 신갈-동막간 4차선 도로가 새로 개통되어 이르는 길은 더 늘어났다. 정자 마을 앞에서는 외통수 길이니, 막히고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기흥 일대에서는 농지가 비교적 널찍한 편이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냈을 뿐 아니라 러 조세를 바치는 공세창貢稅倉이 이곳에 있었다.

‘공세울’이라는 지명은 여기서 연유한다. 마을은 크게 둘로 나뉜다. 탑안마을과 큰말이다. 경부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면서 동서 양편으로 갈랐다. 서편이 탑안이다. 바로 ‘공세리 5층 석탑’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42호인 공세리 5층석탑은 우리나라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탑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그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가 담장 밑에 바짝 근접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나만 마치 빌붙어 웅색하게 사는 천덕구러기 같은 인상을 받았을까 싶다.



공세울 큰밭 전경. 밀성 밖씨 종족촌으로 원주민이 20여 호에서 10년 사이 그나마도 줄어 4호에 불과하다.



탑안마을 전경. 민가는 몇 채 안된다. 멀리 가흥호수가 아름답다.

주위 둘러망도 언제 손을 보았는지 녹슨 채다. 쇠락하여, 뭔가 새로운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마을 모습과도 닮았다. 가만히 살펴보면 기단부를 이루는 지대석에는 연꽃무늬가 아직 선명하다. 상층기단을 이루는 빔돌 중 동서방향의 두 쪽이 분실된 모습이다. 상륜相輪이라 불리는 탑머리는 없어졌다. 탑지붕을 뜻하는 옥개屋蓋의 완만한 낙수 면과 간단한 지붕받침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식이라는 설명이 안내판에 붙어있다.

수난의 역사와 함께 한 공세울 5층석탑

담장을 따라 5층 석탑에서 6m쯤 북쪽에 석불상이 나왔어 있다. 좌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단아한 모습의 석불상은 안타깝게도 머리 부분이 멸실되었다. 불교조각의 새로운 부흥기였다고 전해지는 고려시대 중기의 석불답게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옷 주름이 뚜렷하다. 뛰어난 입체감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좌대 세로면 정면에 새겨진 3개의 연판문과 15판의 연꽃무늬가 좌우로 감싸고 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왼손은 가운데 놓고 무언가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놓았다. 음양각이 정교하고 도드라진 석불의 조형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유려함을 갖추고 있다.

이토록 균형 잡힌 몸매와 편안한 자세를 한 석불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자세만큼이나 편안하고 너그러우면서도 근엄함을 잃지 않은 잘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란 상상을 해본다.

석탑과 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이곳에 절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듯싶다. 민족유산 말살에 열을 올렸던 임진왜란 때 왜적들에 의해 폐사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이다. 석불은 주민들에 의해 간단한 당우堂宇를 짓고 연연히 주



경기도문화재 자료 42호인 '공세리 5층석탑' 우리나라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탑 가운데 하나다.

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버텨왔다 한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또 한번의 수난을 겪고 말았다. 시집을 와 줄곧 석탑과 석불을 위하여 살았다는 최옥래(78)씨에 의하면 1951년 1·4후퇴를 하던 당시 공세리 일대는 격전지였다고 한다. 그는 멀지 않은 피난지에서 마을을 바라보았는데, 이곳에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서 별정계 불길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불바다였다는 것이다. 돌아와 남은 것은 없었고 덩그러니 석탑과 석불뿐이었다고 한다. 그나마도 성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석불상의 머리 부분이 아예 없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쇠심으로

몸체와 연결된 채 있었던 것을 80년대 중반 경 누군가 거둬 가버린 것이다.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석불사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다. 10여 년 전만해도 주민들은 이를 끔찍하게 위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떡을 해 탑과 불상 앞에 올렸다. 종교적 의례라기보다는 마치 마을로 내려온 머릿처럼 생각했으리라.

관계당국이 보존에 대한 무관심속에 주민들은 오래도록 돌아오던 석탑과 석불상을 경기도 박물관이 생기자 그리로 옮기도록 건의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 황연

수씨(1929~1991)가 꿈을 꾸었다.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마루선반에 석불좌상의 두상부분이 덩그러니 얹혀져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두상을 가슴에 안다가 깨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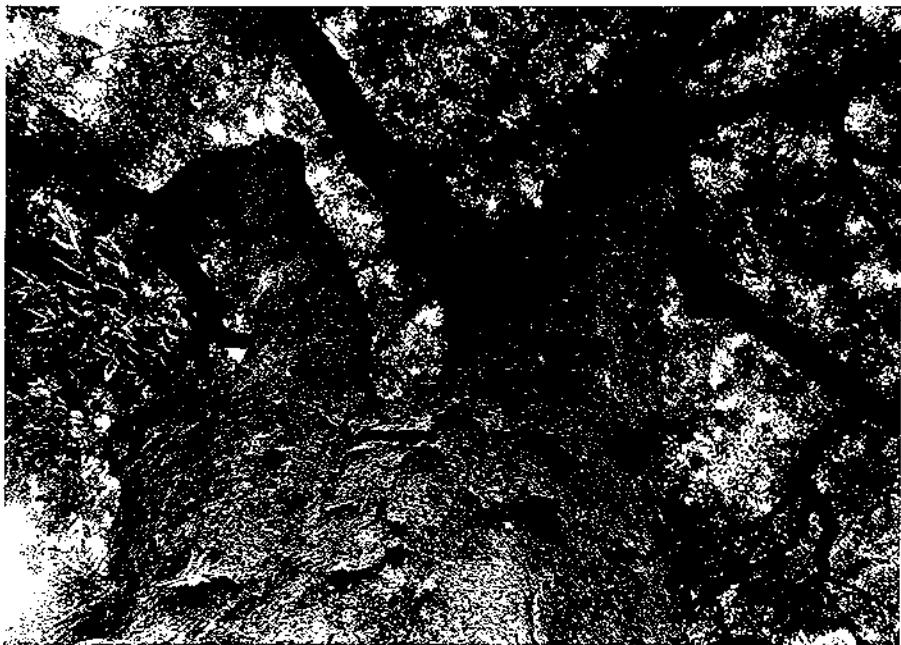
기다리면 없어진 머리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박물관 이전 건의 계획을 이내 거둬들였다.

밀성 박씨 증족촌 큰말

23번 국가지원지방도호가 큰말(大村)을 가로지르는 관계로 공세골이 아늑한 느낌을 주진 못한다. 큰말은 반쯤 도회화 된 동네다. 마을이 이처럼 변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제일빌라를 필두로 4동이 들어선 다음 새마을 공장으로 지어진 도자기 공장이 옮겨간 자리에 고층 세원아파트가 지어졌다.

본래 큰말은 밀성박씨密城朴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던 곳이다. 이제는 원주민이 20여 호에서 10년 사이 그나마도 줄어 4호에 불과하다. 농사가 주업이었지만 본래 물이 귀했다. 공세천이 고매리와 경계를 이루며 신갈저수지로 적은 수량이 흘러들 뿐이다. 현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물이 귀했던 만큼 물을 위하는 우물제사井祭를 매년 올렸다.

가을추수가 끝나고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잡아 음식을 차리고 공동우물 5곳에서 제가 올려졌다. 임경래(69·공세리 155)씨댁 마당, 문형규(49·공세리 173)씨댁 앞, 최영식(60·공세리 174-4)씨댁 뒤, 기건우(71·공세리 204-7)씨댁 마당, 황희연(공세리 290)씨댁 앞마당이 우물이 있던 자리다. 마을 골골이 지명이 없을 리 없다. 동북쪽으로 메주골이 가까이 있고 다음이 꼽수골, 품수골이다. 능안골이라 부르는 큰골이 제일 멀고 예전에 가마터가 있었다는 동막골은 지금



3백년 느티나무. 큰말에는 두 그루가 2백여m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다. 돌팔매질로 상대편 느티나무를 맞추면 '장사' 칭호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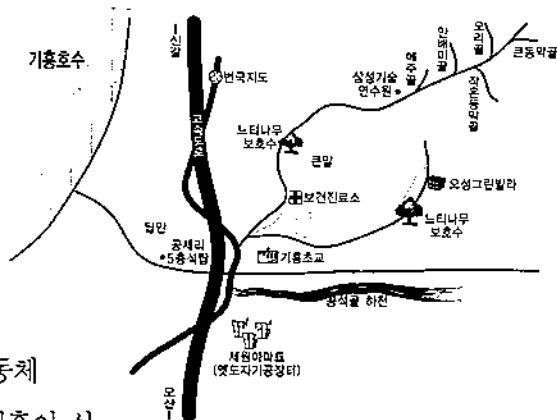
도 땅을 파보면 검은 고령토가 나오기도 한다.

3백년이 족히 넘는 느티나무 두 그루도 이 마을을 상징한다. 동서방향으로 2백여m의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옛날 추석명절이면 이곳에 모여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장사를 가렸다. 방법은 간단해 돌팔매질로 한 쪽 느티나무에서 상대편 느티나무를 맞추는 거였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멀리 던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어른들 기억으로는 한 사람만이 그 나무를 맞추어 '장사' 라는 칭호를 얻었다 한다.

공세골은 수원생활권에 가깝다. 용인시청 소재지에서 보자면 변방에 다름 아

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사무와 관련한 주민생활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기관이 하나있으니, 보건진료소다. 단순한 간이 의료기관역할을 넘어서 주민사랑방이기도 하다.

오르는 땅값과 물려드는 외지인으로 과거의 오랜 농경사회 중심의 기초공동체는 거의 무너진 실정이다. 그로 인한 내홍이 심한 인근지역에 비해 마을은 차분하다. 주민들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한다. 마을 서편의 잔잔한 호수 물결처럼, 천년 가까이 인재와 천재에도 견뎌내며 옛 자취를 전해주는 석물처럼,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영원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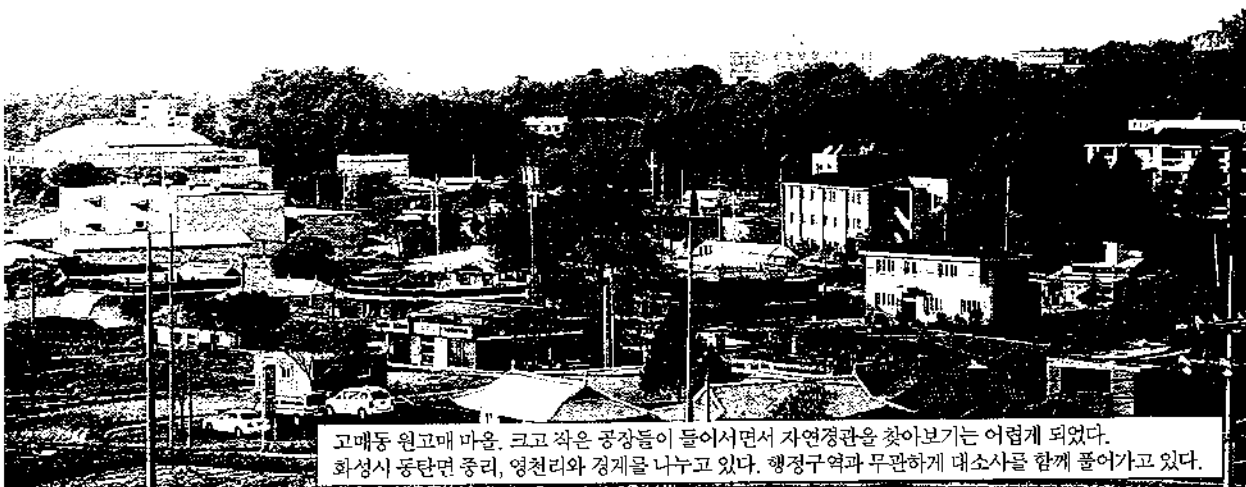


기흥동 원고매

지역가림 뛰어넘은 용광고 공동체

골매굴이란 지명에 간혀 한참을 씨름했지만, 어느 문헌에도 그 어원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는 것은 없었다. 골매골, 원고매 마을. 지명과 숲을 보면 마을 안정을 꾀하기 위한 풍수적 조치를 해 놓은 터라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다. 골매가 되었든, 매골이 되었든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 형국론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이 많다. 예로부터 그 형세가 매화꽃이 떨어져서 향기를 낸다는 매화낙지형은 길지(吉地)로 여겼음을 볼 때, 원고매 마을의 깊은 연조가 느껴진다.

더구나 마을 앞에 이르면 큰 숲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은 개방과 폐쇄가 적당히 혼합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풍수개념을 원고매는 충실히 따른 느낌이다. 만약 숲이 없었다면 분명 허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매 숲은 보통 숲이 아니다. 마을도 숲을 중심으로 그 안과 밖으로 구분되는 기준이다. 더불어 화성과 용인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한다.



고매동 원고매 마을.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자연경관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화성시 동탄면 중리, 영천리와 경계를 나누고 있다.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대소사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

규모 또한 대단하다. 단일 규모로는 용인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편인데,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방대한 크기였다고 한다.

10년 전 당시 80세인 금세영 노인 회장에 따르면 “수천 평까지 났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짧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파서 사흘을 먹고 살았다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먹을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얘기다. 더러는 금괴가 나왔다고도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일설도 들려주었다. 각기 다르긴 하지만, 이곳 마을 숲은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곳이자, 마을의 풍요와 관련된 풍수적 공간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느티나무와 신부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은 주변의 거센 개발 바람 속에서도 꾀꾀하게 버티고 있었다. 아니 이를 넘어 숲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키워가고 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가운데 수명을 다한 수 백 년 고목이 한 편에서 쓰러지고 그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니, 원시림 자연 생태계가 멀리 있지 않았다.

용인 · 화성사람, 한마을 주민

용인이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음은 고속도로 나들목 만 봐도 확인된다. 수원IC로 불리는 신갈 나들목과 용인, 양지, 기흥 등 4개에 이른다. 원고매 마을은 기흥 나들목을 나와 바로 연결된다. 기흥구 남쪽 끄트머리다.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 중리와 맞닿아 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긴 했지만, 3백여 년 전에 들어온 수원 백씨(水原白氏)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어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들어왔다. 지금 이 마을 대성을 이루는 남양 홍씨(南陽洪氏)가 약 2백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 지금은 홍씨 외에 봉화 금씨(奉化金氏)와 김해 김씨가 많은 곳이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행정구역의 벽을 넘어 자연적 생활 울타리를 이루며 살

고 있다는 점이다. 그 상징성은 용수 대동회다. 용인 고매리와 화성시 동탄면 중리, 동탄면 영천리 주민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친목 모임이다. 이들은 마을의 대사라 할 수 있는 동제, 즉 산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생활공동체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동제뿐만 아니라 품앗이 등 노동단위로서도 같이하는 마을이다

그러나 공장들이 대거 마을에 입주하면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원주민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유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대개가 이 마을에 오래도록 살며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다. 대신 젊은이들은 거의 유입주민으로 보면 된다. 일터를 찾아 들어온 주변 공장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도 대개의 인근 여느 마을처럼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강한 유대와 질서는 많이 무디어졌다. 오래도록 내려오는 전래문화를 유지하고 상호부조하며 이웃을 챙기는 모습은 정주해 사는 사람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에선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문화가 한 동네에 상존하는 것이다.

마을 앞에는 빈장산이 있다. 높지 않지만 깊숙한 마을 산이다. 그 봉우리를 마을에선 '당집봉'이라 한다. 산제당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1일 주변 3개 마을이 용수대동회 주관으로 산신제를 올린다.

깊은 골 맑은 물에 인재도 많아

이 마을에는 인물도 많이 났다. 원로 문인 목원牧園 홍대춘洪大春(1902~2006) 선생도 그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태어나 소년기를 보내고 외지에 나가 중·장년기를 보냈다. 그는 70여세가 되어 고향에 돌아와 정주하며 시를 썼다.

이러한 작업의 결실이 『해동명시선집부목원문고海東名詩選集附牧園文稿』이다. 신라, 고려, 조선의 선배 문인들의 주옥같은 글을 선택해서 신희 문우들의 시, 그



원고매 마을 숲. 최대 수천 평에 이를 정도의 규모였으나 지금은 일부가 훼손되었다. 갓가지 전설까지 안고 있다.

리고 목원 자신의 시를 한데 묶은 것이다.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이었다. 14세까지 글방에서 한문을 배워 익히면서 시작됐다. 경기사범대를 졸업하고 잠시 안성에서 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역임한 그는 오산에서 양약방을 오래도록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가천佳泉 송요중 선생 등과 함께 한시를 쓰며 동인지 『백구시단白駒詩壇』을 만들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백구시단을 지역향토 문학의 원조 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시집에 들어있는 많은 시 가운데 문학과 동료를 사랑했던 그의 심정이 절절히 배어 있는 시구 하나가 있다.

文星昨夜落駒城 문학계의 별이 어젯밤 구성에 떨어지니

